

July 2021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우리 사회의 Narrative를 기록하는 Numbers에 대하여

사회가 힘들어질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많은 사회조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삶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전례 없는 위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회조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가치연구원은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가치연구원만의 체계적인 프레임을 기본으로 꾸준히 조사하되, 우리의 행동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셜 서베이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담아본 올해의 스페셜 서베이 분석에는 첫째, 작년에 이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둘째, 기업의 ESG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함께 기업과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더해졌습니다.

저희 조사의 강점 중 하나는, 현재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미래(10년 후)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사회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지난 해와 다르게, 올해는 감염병 대응 체계 부족이 상위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의 일상화, 구조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의 다각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문제도 상위 이슈로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주체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국회,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확연히 하락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는 ESG 경영이 그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ESG 경영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우리 사회, 모두입니다. 분석 결과 국민도, 기업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대비 한국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사회 영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Mismatch가 드러난 것이지요.

올해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Narrative를 드러내는 Numbers들만 담긴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꾸준히 쌓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신나는 Narrative와 Numbers가 담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원장 나석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두의 노력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자산·지역 양극화는 물론 업종에 따른 기업의 실적도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증 및 정서 불안은 가중됐으며, 비대면·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소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현재에 주목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사회문제 진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임팩트 데이터&솔루션 플랫폼 '트리플라잇'은 지난해부터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기획 및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사회문제와 관련된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과 전년 대비 급등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들에 대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행동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ESG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집중도를 진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역할과의 미스매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데이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개인의 일상의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국민의 73.2%가 코로나 이전보다 불행해졌다고 답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58.7%로 전년 보다 40%p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들은 소득 양극화 보다 '집값 불안정' 문제로 인해 삶이 가장 힘들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 주체로서 정부 이외에도 기업, 개개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평가한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점수는 45.2점(100점 만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기업의 책임경영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혁신과 가치를 담은 다양한 실험을 더해, 모두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 가야 할 것입니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트리플라잇(triplelight)은 임팩트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임팩트 데이터&솔루션 플랫폼으로, 이슈와 연결되는 임팩트를 데이터·스토리·시각화 기반의 콘텐츠와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 | | |
|----|--|
| 8 |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
| 9 | Korea Impact Issues: Executive Summary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Collective Impact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2020-2021 Hot Topic 급등 이슈와 코로나19– Special Analysis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
| 24 | Process
연구 방법 |

CHAPTER 2

Analysis for Impact Issues

2021 사회문제 분석

- | | |
|----|--|
| 30 |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Present & Future Issue 현재와 미래 이슈 |
| 34 |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Problem & Difficulty Level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
| 38 |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ion Impact Analysis 사회문제 해결 유형 분석– Cross Analysis 사회문제 관심도가 인식과 액션에 미치는 영향 |
| 44 | Covid-19 Survey
코로나19와 국민의 삶 |

CHAPTER 3

Analysis for Sustainability Issue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 | | |
|----|---|
| 50 | Public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
| 51 | Sustainability Gap Analysis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전략 |

CHAPTER 4

Beyond 2021

우리가 만드는 미래

- | | |
|----|--|
| 56 | Conclusion
사회문제 해결 방향성 및 종합 제언 |
|----|--|

Appendix

- | | |
|----|-----|
| 62 | 설문지 |
|----|-----|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트렌드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떠오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회복탄력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비즈니스, 개개인의 행동이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염두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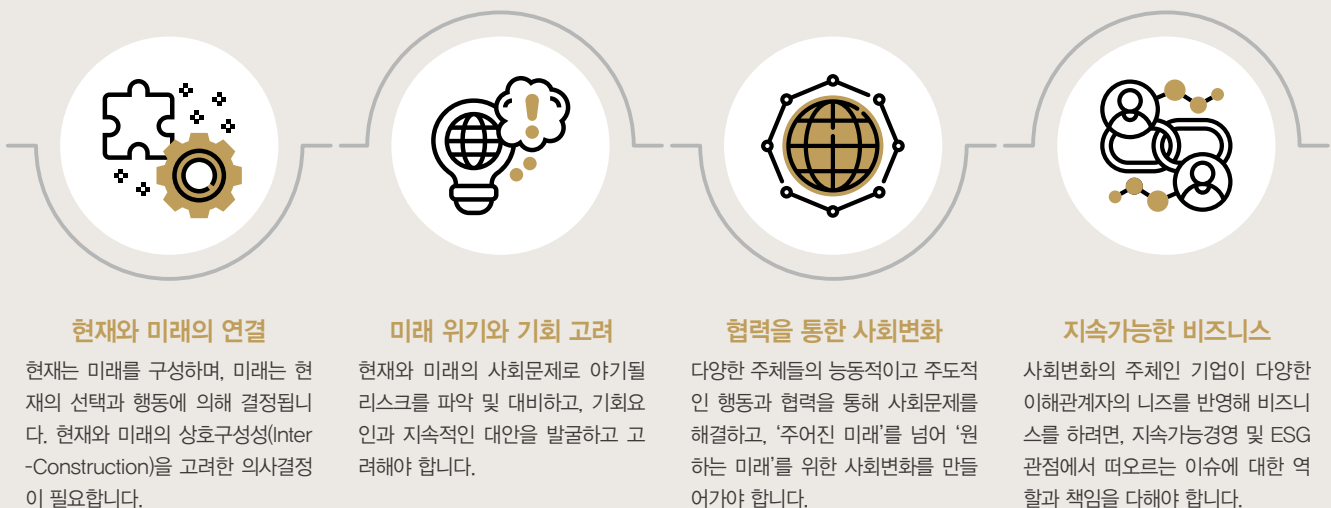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

경제, 인구, 문화, 가치관, 세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 목적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매년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



Korea Impact Issues : Executive Summary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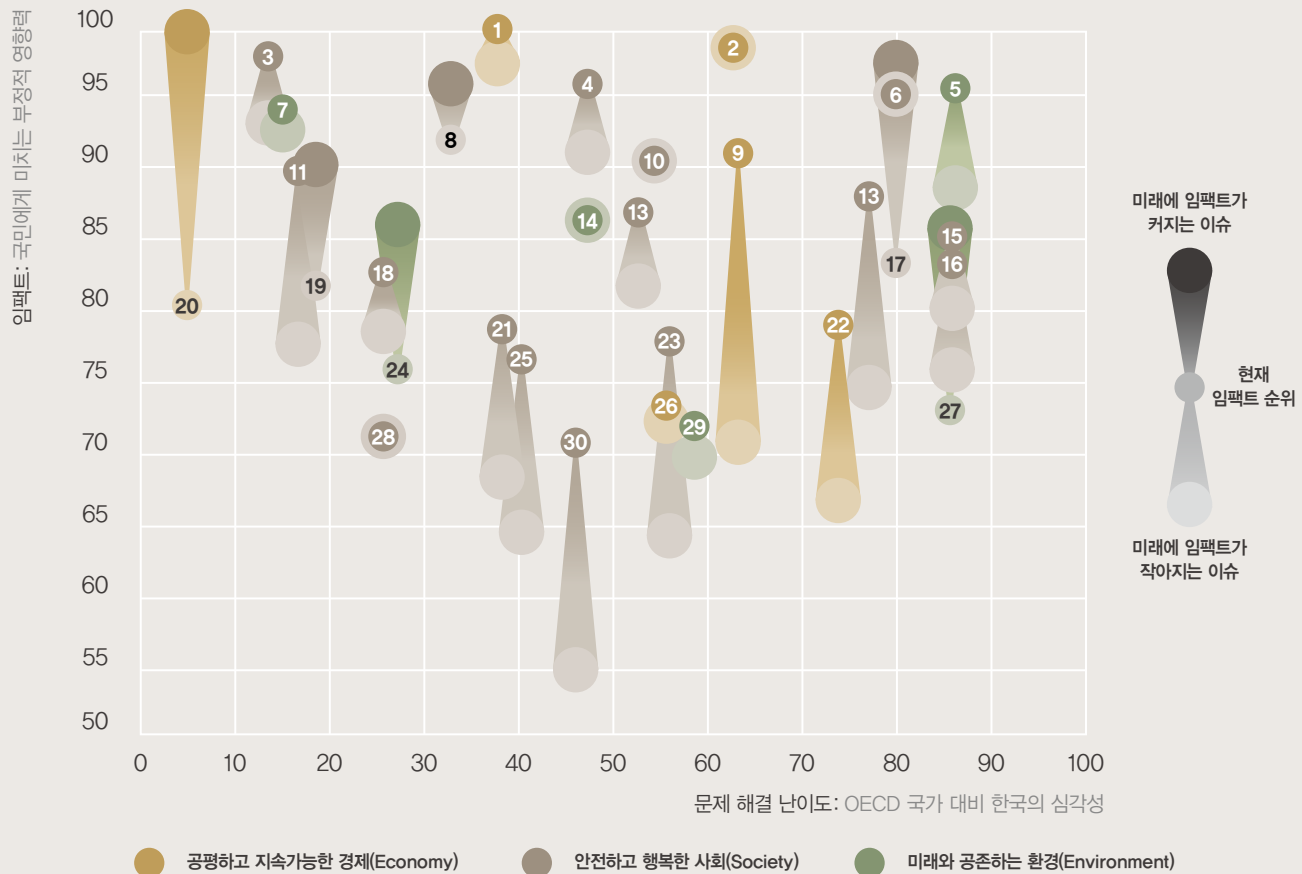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정부·기업 등 문제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에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식조사와 이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을 선정하고, 해당 문제들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득 양극화 심화와 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었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대한민국 사회문제: 현재와 미래



※ Note: Y축 '임팩트(부정적 영향력)'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슈 데이터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이 주목하는 100개 사회 이슈'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문제해결 난이도'는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7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37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국민의 삶 가장 힘들어 이유...집값 불안정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입니다. 작년 Top 1 이슈였던 '소득 양극화 심화'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문제 보다 주거 부담으로 인한 불안정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불안정 문제는 10년 후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개인 일상의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3위)'과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 4위)'이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Top 3~4 이슈로 꼽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보다 투명한 소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후위기, 국민 체감도 증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기후위기 이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5위 이슈로 선정됐던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이슈가 올해는 14위로 떨어진 반면, '미세먼지 증가' 문제가 5위(2020년 15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회문제 Top 30에 들었던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이슈가 기존 3개에서 올해 폭염 · 한파 증가, 지구 온난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이슈가 포함되며 총 6개로 증가했습니다.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한 고민

지난해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 불안과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문제는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40)',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30)',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27)', '저출산 문제(▲26)', '폭염 및 한파 증가(▲24)'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한파, 대체 에너지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도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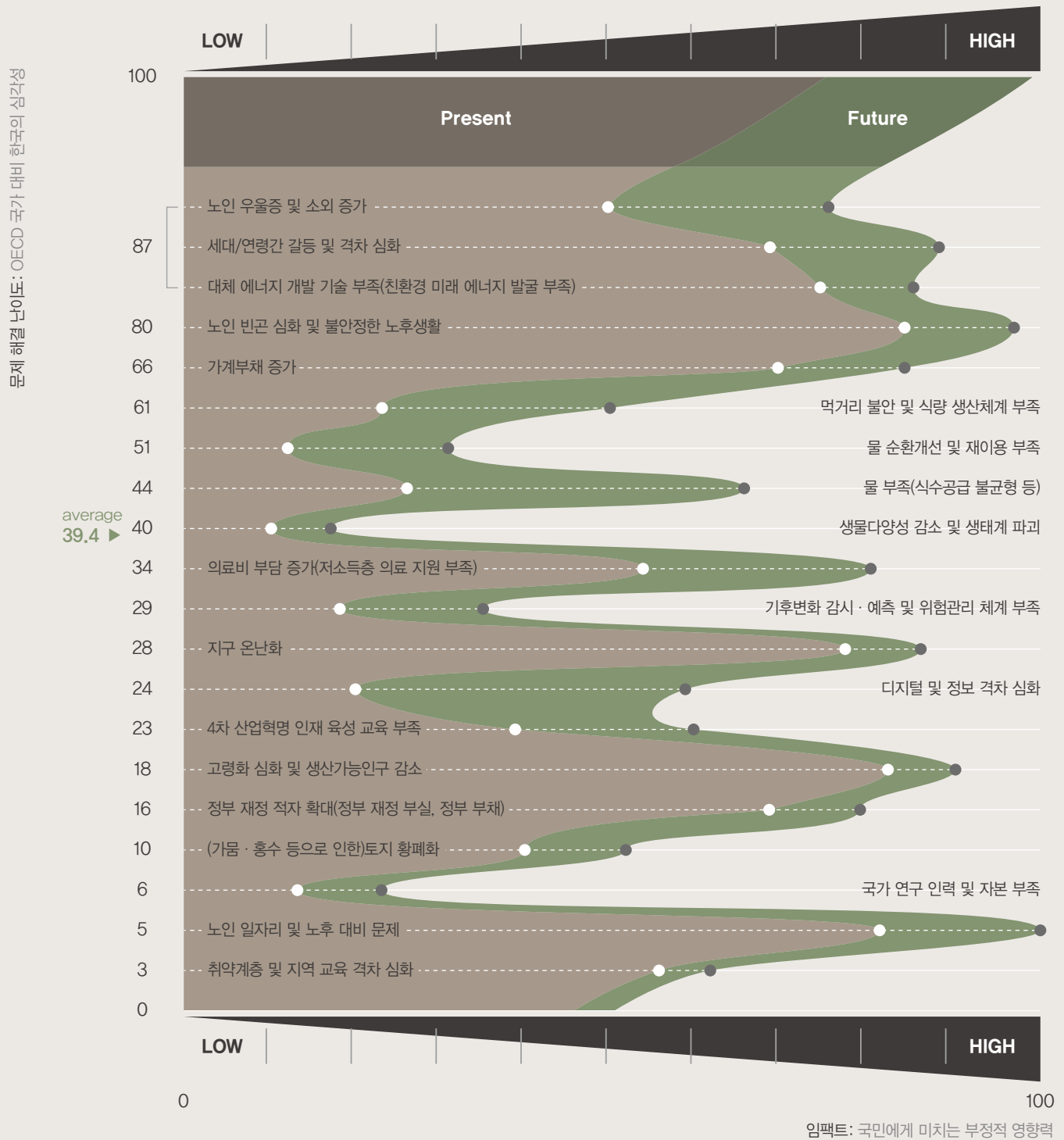
순위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현재 임팩트(전년 대비)	미래 임팩트(전년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
1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100 (▲ 2)	98 (▲ 3)	37
2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9 (▼ 1)	99 (▼ 1)	62
3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98 (▲ 27)	94 (▲ 20)	14
4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7 (▲ 8)	92 (▲ 5)	48
5	미세먼지 증가	96 (▲ 10)	89 (▼ 4)	87
6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5 (▲ 3)	95 (▲ 3)	79
7	폭염 · 한파 증가	94 (▲ 24)	93 (▲ 12)	15
8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 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3 (▲ 19)	96 (▲ 32)	32
9	청년 일자리 부족	92 (▲ 1)	72 (▲ 1)	63
10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91 (▼ 2)	91 (▼ 3)	54
11	결혼 · 출산 · 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90 (▼ 3)	78 (▲ 12)	17
12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9 (▲ 8)	76 (▲ 3)	77
13	이념 · 지역 · 정치적 갈등 심화	88 (▲ 6)	83 (▲ 11)	52
14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87 (▼ 9)	87 (▼ 3)	48
15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86 (▲ 7)	82 (▲ 28)	87
16	저출산 문제	85 (▲ 26)	76 (▼ 4)	87
17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4 (▼ 15)	97 (▼ 2)	80
1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83 (▼ 11)	79 (▲ 4)	26
19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2 (▲ 2)	90 (▼ 7)	18
20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81 (▲ 40)	100 (▲ 2)	5
21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80 (▼ 3)	69 (▼ 22)	39
22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79 (▼ 16)	67 (▲ 16)	74
23	만연한 특권과 편법	78 (▼ 20)	64 (▲ 25)	56
24	지구 온난화	77 (신규)	86 (신규)	28
25	지역발전 불균형	76 (▲ 3)	65 (▲ 9)	40
26	일자리 정책 문제	75 (▼ 13)	74 (▼ 5)	55
27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74 (▲ 30)	85 (▲ 24)	87
28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73 (▼ 17)	73 (▼ 12)	26
29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72 (▲ 7)	70 (▲ 14)	58
30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71 (▼ 4)	56 (▼ 9)	46

※ 지구 온난화(24위), 지역발전 불균형(25위), 일자리 정책 문제(26위)는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이슈 100'에 새롭게 편입된 이슈로 전년도 비교값이 없음.

현재보다 미래, 떠오르는 이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지구적 위기를 겪은 국민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보다 10년 후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임팩트)이 커지는 Top 20 사회문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재보다 커지는 미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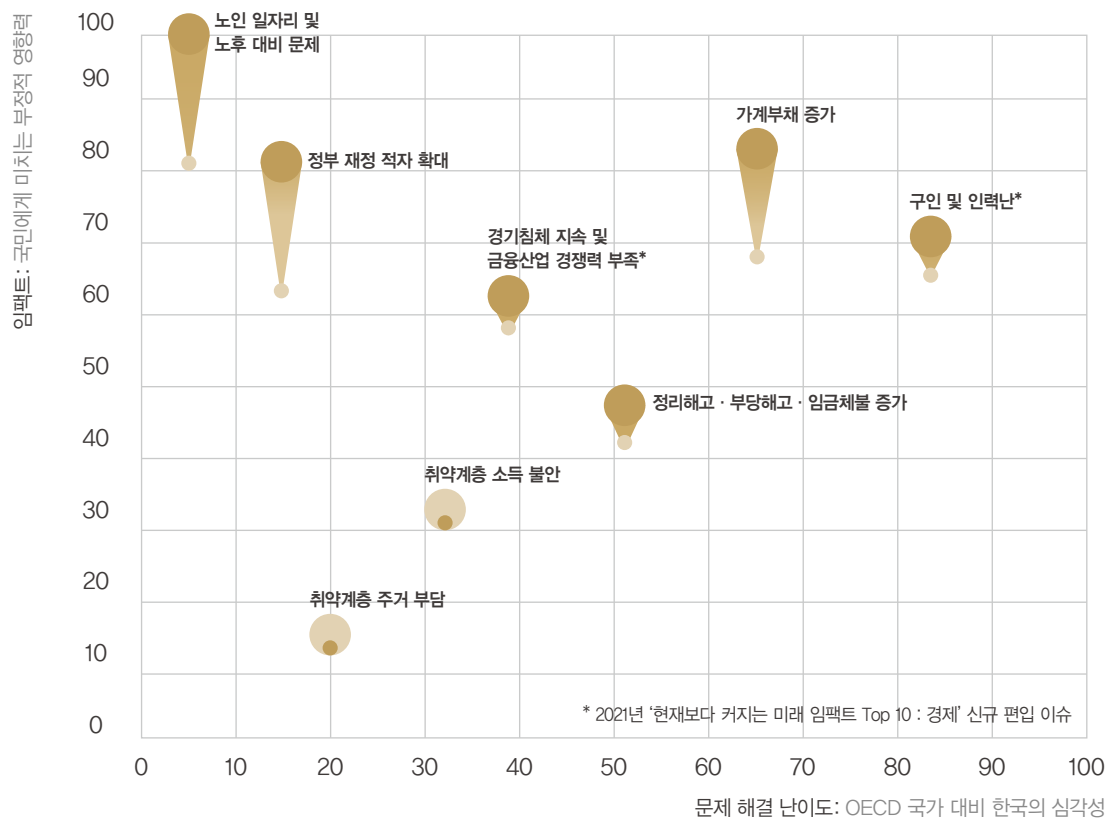


지난해 연구에서 '10년 후 자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슈(현재와 미래 부정적 영향의 차이)'로 꼽혔던 '노인 일자리 문제(1위)'와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2위)' 이슈는 올해 각각 11위, 6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10년 후 미래에 '물 부족(식수 공급 불균형 등)',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 체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수 및 먹거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체감한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가 미래에도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개인의 소득 및 소외 문제를 '미래의 위기'로 바라보던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 차원으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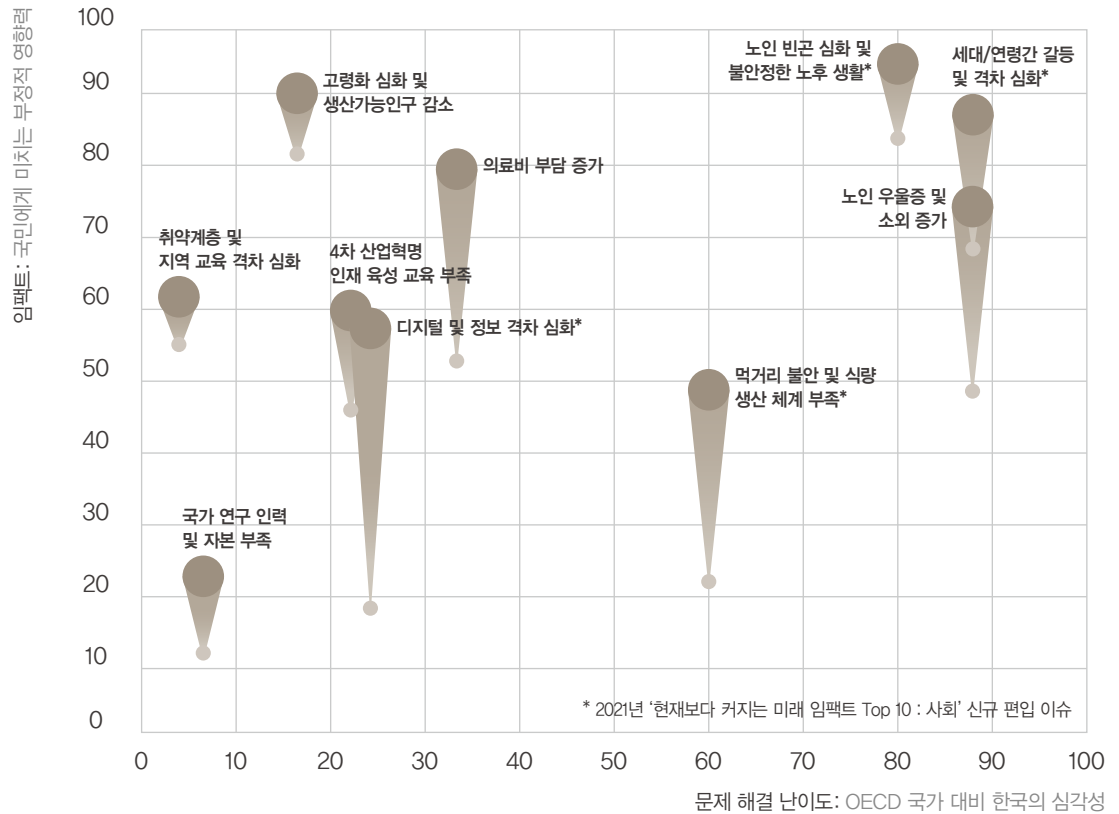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경제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Top 10 이슈 분석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사회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력이 커지는 Top 10 이슈 분석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환경 이슈의 현재-미래 매트릭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력이 커지는 Top 10 이슈 분석



사회문제, 누구 책임일까

사회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및 정부에게 경제 및 사회 이슈 전반의 책임 (문제 발생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이 정부에게 있다고 답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세부 이슈별로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148명), 고용 및 노동 불안정(▲102명), 교육 불평등(▲26명), 삶의 질 저하(▲97명),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81명), 사회통합 저해(▲115명) 등 경제·사회 이슈 대부분에서 정부의 책임을 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안전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국민의 숫자가 가장 크게(▲51명) 늘어났습니다.

사회문제 책임 주체

사회문제	응답자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	615	250	29	8	29	3	3	5	58
고용 및 노동 불안정	483	194	230	9	18	23	4	5	34
교육 불평등	592	198	26	16	34	18	4	4	108
삶의 질 저하	564	234	39	17	37	12	1	4	92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21	203	32	14	35	17	5	4	169
사회통합 저해	391	355	41	24	62	20	6	3	98
안전 위협	527	152	26	21	58	12	20	27	157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233	70	161	18	18	32	108	85	275
자연재해	237	59	98	14	17	21	177	93	284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70	83	117	17	9	31	106	62	104

※ Note: 국민 1,000명 중 응답자 수

사회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까

국민들은 10개 사회문제 테마 모두 정부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627명), 교육 불평등(581명), 안전 위협(546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고용 및 노동 불안정(▲9), 사회통합 저해(▲19), 환경오염과 기후변화(▲41),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21) 등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니즈가 나타나, 향후 기업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제기구(▲77명)에 대한 문제 해결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위협’ 문제의 해결 주체로 기대를 받았던 국회 및 정당 대신 개개인이 2위에 오른 점도 코로나 1년 이후 개개인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해결 주체

사회문제	응답자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및 주거 불안	627	196	52	23	18	21	9	4	50
고용 및 노동 불안정	436	142	294	24	13	58	7	8	18
교육 불평등	581	163	35	50	36	38	10	4	83
삶의 질 저하	519	176	40	84	28	56	6	7	84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06	152	37	67	33	57	9	6	133
사회통합 저해	377	249	58	103	63	36	12	7	94
안전 위협	546	96	37	57	40	30	66	16	112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236	54	105	87	35	41	195	47	200
자연재해	328	41	48	54	27	29	284	38	150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434	58	131	36	22	56	174	28	61

※ Note: 국민 1,000명 중 응답자 수

국민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개개인이 환경오염·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안전 위협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할까요.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국민 1,000명에게 100조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얼마큼 편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국민 1,000명에게 주어진 예산 중에서 평균적으로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20.2%)에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

됐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15.9%), 환경오염과 기후변화(10%), 삶의 질 저하(9.6%), 교육 불평등(8.8%)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교육 불평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가 각각 1단계씩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배분된 예산의 증감폭을 분석해보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이 평균 1조 230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국민이 배정한 예산이 전년 대비 4,755억원, 사회통합 저해에는 1,005억원 늘어났습니다. 소득 및 주거 불안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예산 배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에게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할 권한이 있다면?



단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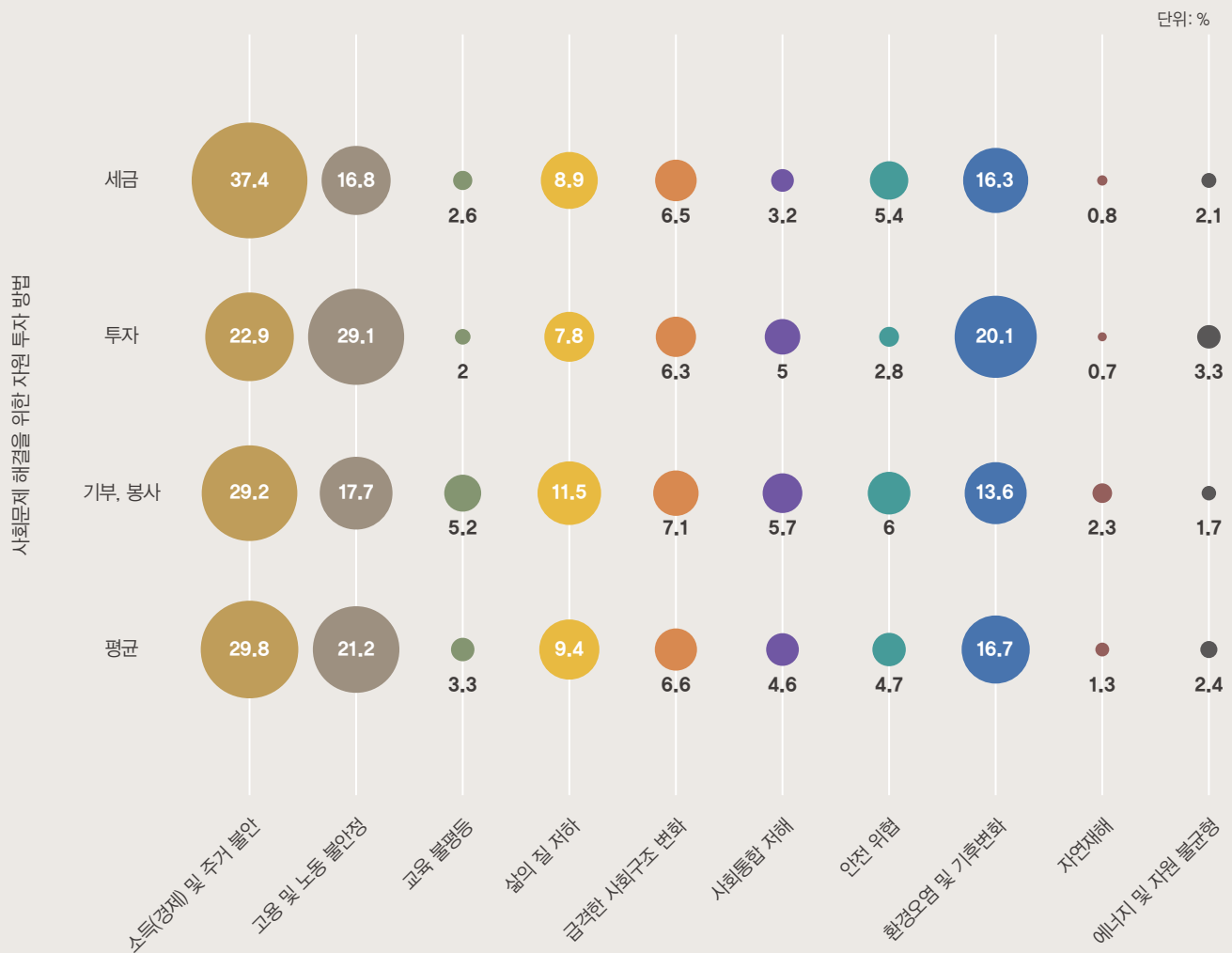
국민이 바라는 문제해결 우선순위

국민들은 세금, 투자, 기부 및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 1,000명에게 세금 추가 납부 의향,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 기부 및 봉사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및 납부한 금액이 어떤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는지, 1순위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을 1순위로,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2순위로 집중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3위), 삶의 질 저하(4위)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 및 기부·봉사를 통해서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 해결 의지가 가장 높았고, 투자를 통해서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투자를 통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이 7.2%p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이 세금·투자·기부·봉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2020-2021 Hot Topic 급등 이슈와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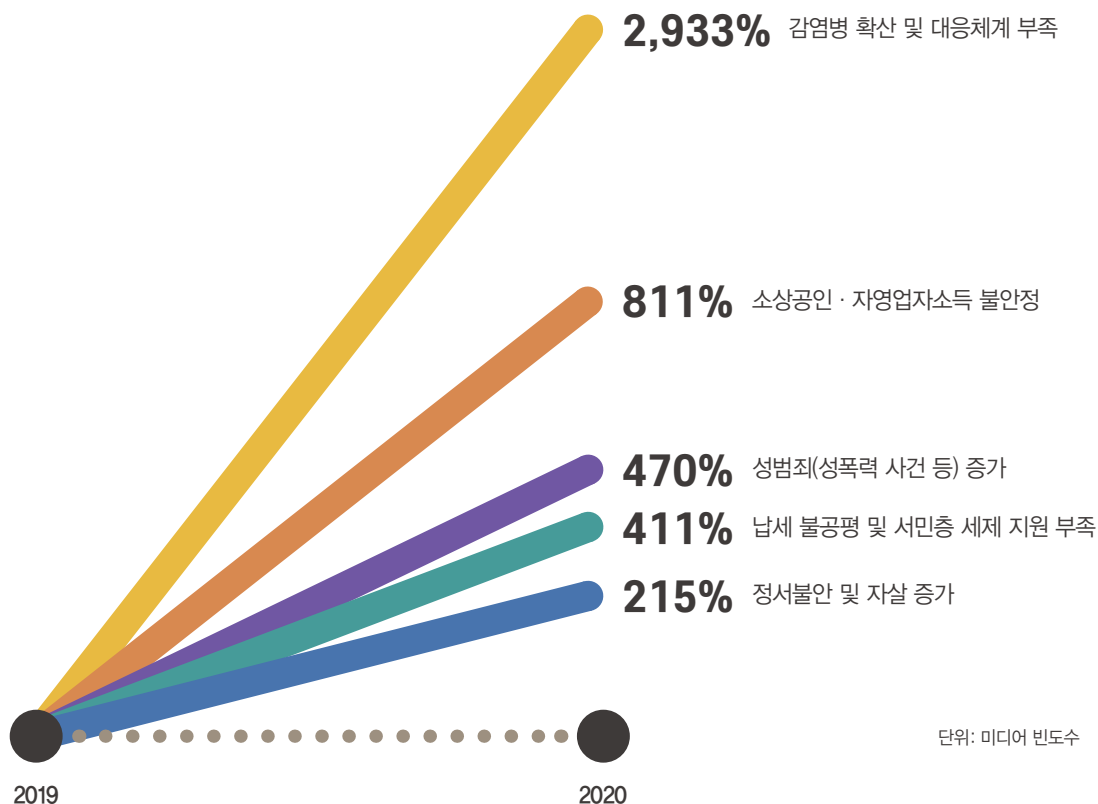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이슈, 1년새 급등

국민의 관심과 뉴스 보도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대중의 관심에 따라 언론 보도 이슈가 달라지며, 뉴스를 통해 확산되는 이슈에 따라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언론사 54곳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2019년 1월~2020년 12월)을 통해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중에서 최근 급등한 Top 5 이슈(미디어 빈도수 기준)를 도출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급등한 이슈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이슈가 전년 대비 2,933% 증가하며 급등 이슈 1위에 올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811%)'과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470%)', '납세 불공평, 중산층·서민층 세제 지원 부족(▲411%)',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215%)'가 급등 이슈 Top 5에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계 및 소득 불안, 정서 불안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 위험군이 2020년 22.1%로 2년 전보다 약 7배 늘었습니다. 한편, 성범죄 이슈(▲470%)의 증가는 유명 연예인이나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2020 HOT Topic Top 5



코로나 이후 행복감과 사회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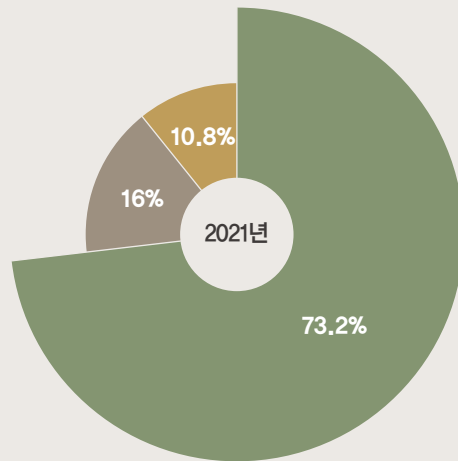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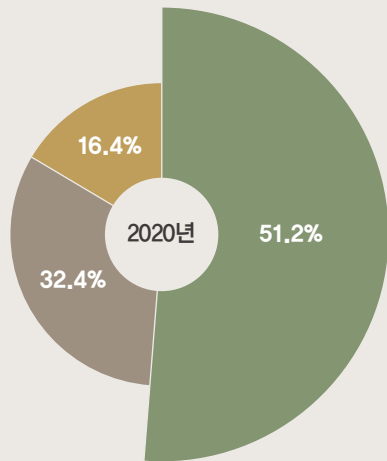
1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전례없는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행복감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우울과 불안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지속, 더 불행해졌다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 더 불행해졌습니다. 국민의 73.2%가 코로나 이전보다 불행해졌다고 답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8.7%로 전년 대비 40.7%p 늘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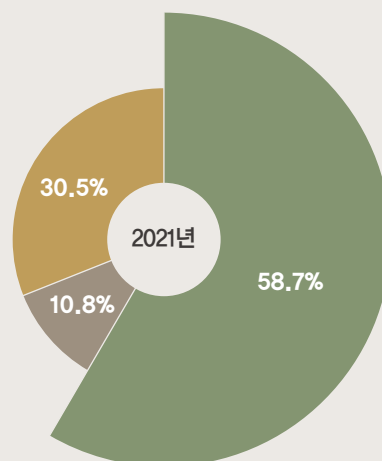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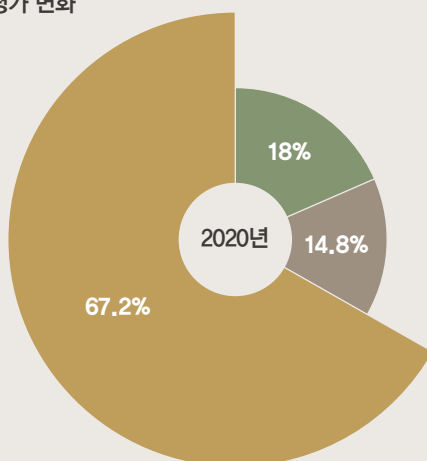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행복감 변화

- 더 행복해졌다
- 변화없다
- 더 불행해졌다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 평가 변화

- 긍정적이다
- 변화없다
-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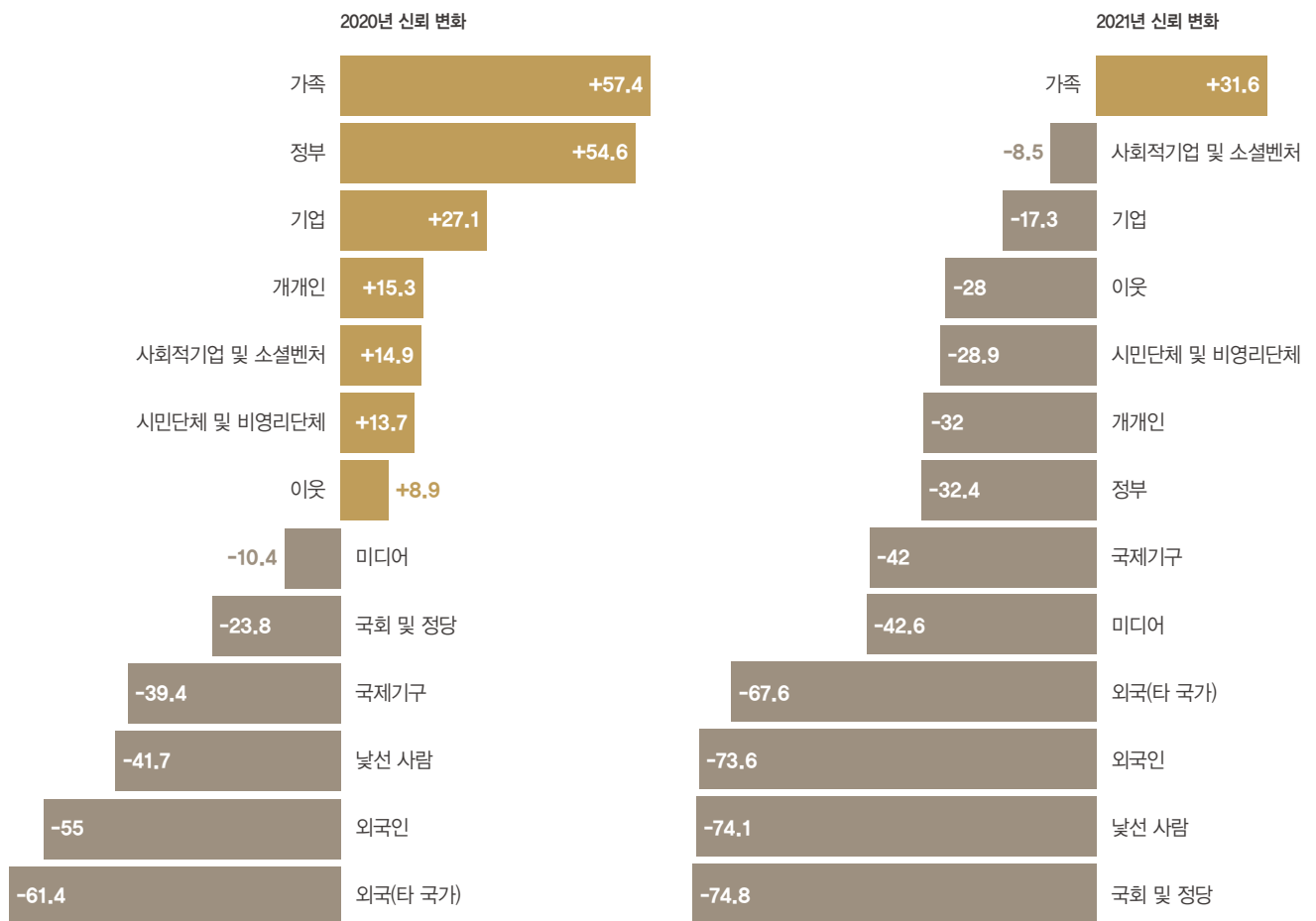


코로나 지속, 신뢰도 급감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람과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족, 정부, 기업, 개개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 이웃에 대한 코로나 이후 신뢰 변화가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1년새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비율은 전년 대비 20.06%p 증가하며, 사람 및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 및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낯선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신뢰 변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각 주체에 대한 신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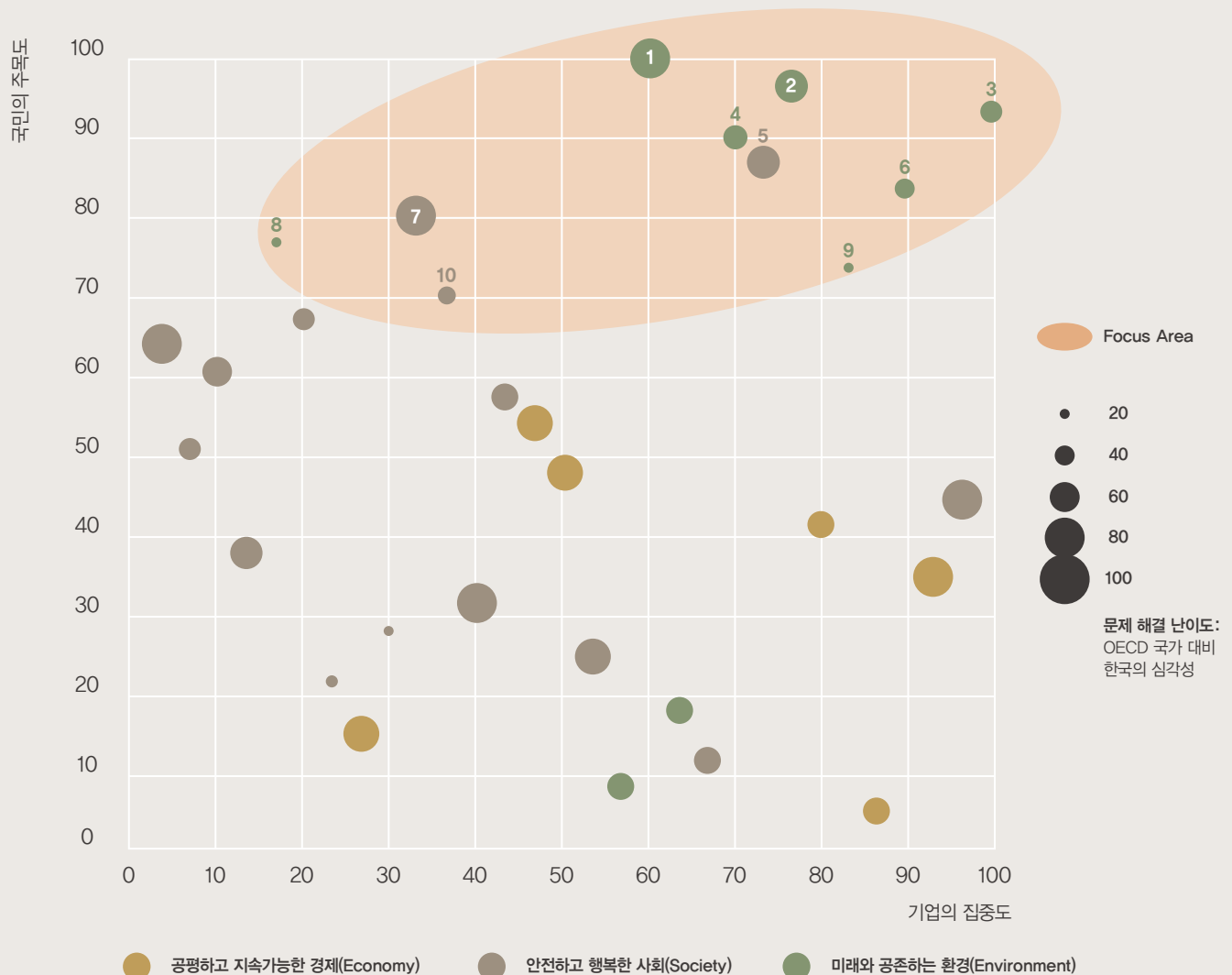


Special Analysis : Sustainable Business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코로나 이후 산업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중에서,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¹와 집중도를 도출하고,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서, 사회·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 Note: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Top 30' 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Top 30' 문제별 집중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1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중대 이슈 Top 30은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 중에서 국내 주요 산업군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취합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 이슈를 연계 및 통합 분석하여 도출함. 분석 대상 기업은 GICS 산업군별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상위기업 중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가 등이 포함된다.

환경 ·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

국민들은 기업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1순위 이슈로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을 꼽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환경 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화학물질 · 유해 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위권 이슈 중 무려 70%가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분야에 기업 역시 환경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국민과 기업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과 안전, '사람'을 위한 기업

국민들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특권과 편법(5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7위)', '결혼 · 출산 ·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10위)' 문제가 각각 국민이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10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집중도 사이의 갭(Gap)이 47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기업의 안전 지수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속가능경영 과제의 확장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기업에 가장 큰 주목을 요구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문제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문제 해결 난이도)이 가장 높은 이슈로, 정부 · 국제기구 ·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통해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임팩트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간 간극이 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이슈 역시 한국의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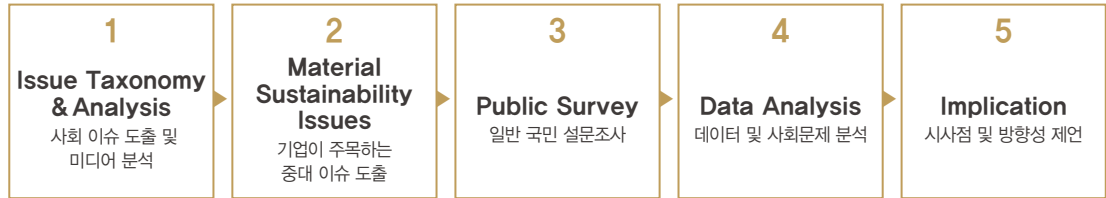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기업의 집중도 Gap

순위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1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100	60	40	87
2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97	77	20	69
3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93	100	7	31
4	화학물질 ·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90	70	20	36
5	만연한 특권과 편법	87	73	13	56
6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83	90	7	25
7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80	33	47	83
8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부족	77	17	60	8
9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73	83	10	10
10	결혼 · 출산 ·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0	37	33	17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Process 연구 방법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①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②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③일반국민 설문조사 ④데이터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분석 ⑤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등 단계별 분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1 Issue Taxonomy & Analysis(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을 선정하여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국내외의 현실과 인식 수준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은 SDGs, K-SDGs&지속가능발전계획, Global Risk, GRI,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 한국 사회지표 등 국내외 사회문제 관련 기준들을 통합 분석하여 138개 이슈 Pool 을 확정하고, 각 이슈별 검색 키워드 설정 및 미디어 빈도수 순위 분석을 통해 최종 100개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

3대 목표	사회문제 10대 테마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가계부채 증가,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고용률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구인 및 인력난, 일자리 정책 문제,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교육 불평등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진로 교육 및 직업 교육 부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양질의 교육 부족,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고등교육의 질 저하,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통신비 부담, 불임 및 난임 증가,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산 문제, 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이탈 현상 확대(노농 불균형), 지역발전 불균형,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시설외소 아동 보호 부족,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성별격차 및 성차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노사갈등 심화, 안전한 특권과 편법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안전 위협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아동학대,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학교폭력,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가정폭력 증가,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미세먼지 증가,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해수면 상승,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자연재해	폭염·한파 증가, 태풍 증가, 가뭄·홍수 증가, 폭설과 폭우 증가, 지진과 쓰나미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화산폭발 위험 증가, 산사태 증가,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대형산불 증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이슈 도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 교수)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하여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트리플라잇의 미디어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100개 이슈를 최신 기준으로 갱신하고 분류체계와 매칭하여 최종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화두로 떠오른 '금등 이슈'에 대한 미디어 분석과 인식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민의 삶을 연계 분석하였습니다.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대 테마, 100개 이슈로 구성됩니다.

2 Material Sustainability Issues(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국내 산업군별 주요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Pool을 취합하고, 이를 '2021 대한민국 사회 이슈 100'과 연계하여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집중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 이슈별 기업 평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습니다. (p.51)

3 Public Survey(일반 국민 설문조사)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 모바일 응답 (p.63 설문지 별첨)
- **조사 기간:** 2021년 5월 7일~13일
- **조사 항목**
 - ① 사회 인식 및 가치관 :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성 · 평등성 · 활력성 · 포용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현재 국가 및 가정의 경제 상황을 진단함
 - ② 사회문제 영향력 : 현재와 10년 후 미래에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진단함
 - ③ 사회문제 해결 주체 : 정부 · 국회 및 정당 · 기업 · 시민사회 등 각 주체별 사회문제 해결 수준과 책임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와 바람직한 방식을 진단함
 - ④ 사회문제 해결 방안 : 사회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액션별 평가와 참여 의향을 진단함
 - ⑤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 :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와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에 대한 기업 평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진단함
 - ⑥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전망 : 지난해 대비 급등한 이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민의 삶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함

4 Data Analysis(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37개국 대비 한국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OECD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한국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p.34)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OECD 37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매칭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 방향 등을 연계하여 짚어봤습니다. (p.56)

5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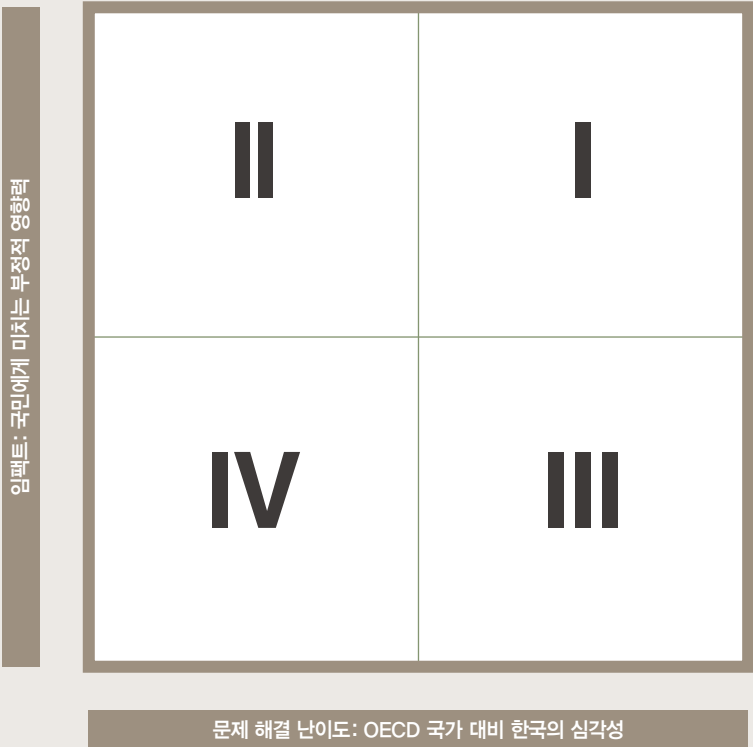
미디어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도출,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37개국 대비 한국 순위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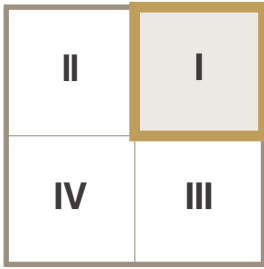
Methodology 연구 프레임워크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수준을 분석하는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에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을수록 모든 주체의 협력과 자원 및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 난이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실험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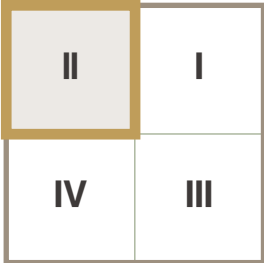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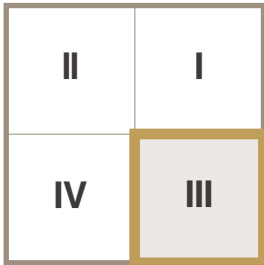
(1) Do First

- 문제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자원·역량 집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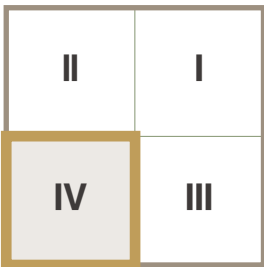
(2) Do Plan

- 문제 영향력이 높고 난이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비교적 해결이 쉬우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역량·자원 계획을 통해 자원 낭비를 경계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3) Do Monitor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해결이 어렵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과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4) Delegate

-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관심이 적고 해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하고 장기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 시민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실험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Y축: 임팩트(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임팩트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도출한 값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하는 사회문제는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3대 목표, 10대 사회문제 테마, 100대 이슈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Y축 값이 높아진다.

▶ p.30: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X축: 문제 해결 난이도(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문제해결 난이도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도출한 값이다.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므로, 문제해결 난이도는 높아지며 X축 값이 커진다.

▶ p.34: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CHAPTER 2

Analysis for Impact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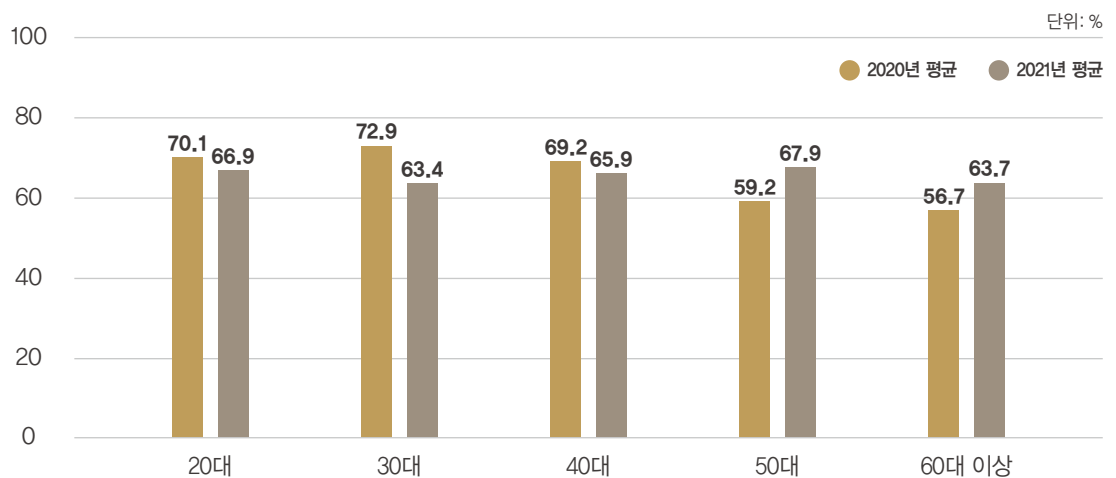
2021 사회문제 분석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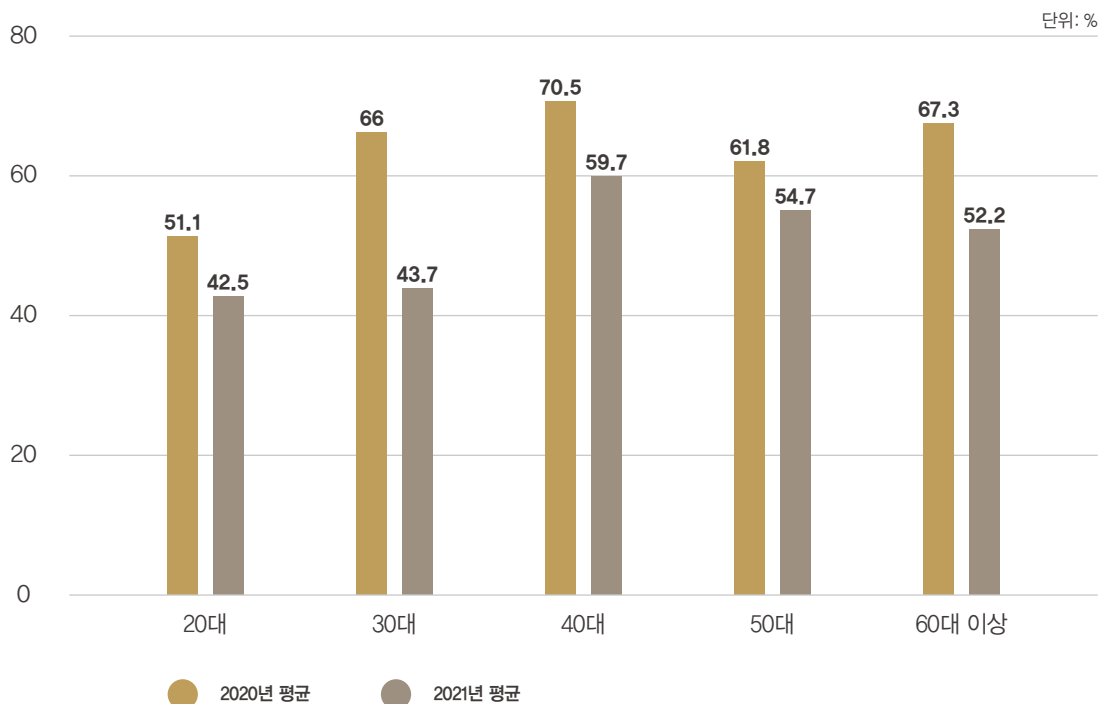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국민들은 나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조사에 응답한 국민 1,000명의 행복감은 연령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의 행복감이 전 연령 대비 가장 낮았고, 지난해와 비교해 20대, 30대, 40대의 행복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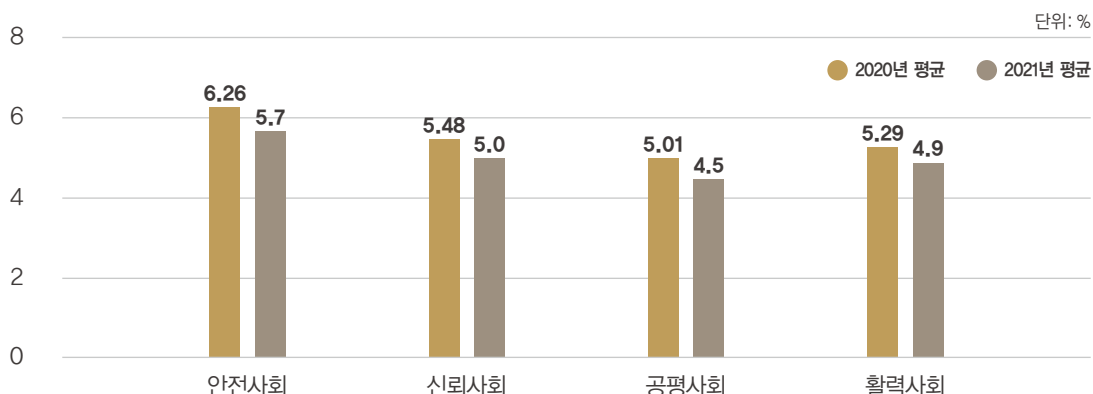
어떤 연령대가 가장 살기 어려울까?



지난해와 비교해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서 '살기 좋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43.7%로, 2020년(66%)에 비해 22.3%p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30대에 이어 '살기 좋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의 감소폭이 큰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15.1%p 감소했으며, 40대(10.8%p▼), 20대(8.6%p▼), 60대(7.1%p▼) 순이었습니다.

한국인 1,000명이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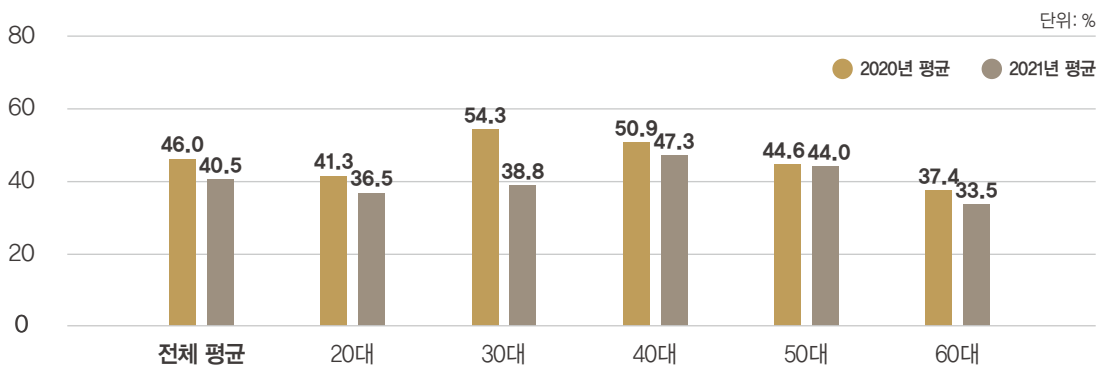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안전성(Security)과 응집성(Cohesion), 포용성(Inclusion), 역능성(Empowerment) 등 4개의 지표를 '살기 좋은 사회'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¹. 설문 분석 결과 '살기 좋은 사회'의 4가지 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20년에 비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안전 사회'에 대한 점수를 가장 높게, '공평 사회'에 대한 점수를 가장 낮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안전 사회(나는 사회 ·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 공평 사회(나는 평등한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고 있다)를 나타내는 2가지 지표에서 최하위 값을, 30대는 신뢰 사회(나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 신뢰, 존중을 느낀다), 활력 사회(나는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등 2가지 지표에 대해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5년 전에 비해 좋아졌을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5년 전보다 국가 경제 상황이 좋아졌는가'에 동의한 비율은 올해 40.5%로 작년(46%)에 비해 낮아졌으며, 3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15%p)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iker(2005), Yang&Holzer(2006), Peters(2002),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재열 외(2015)

Present & Future Issue: 현재와 미래 이슈

사회문제 10대 테마로 들여다본 국민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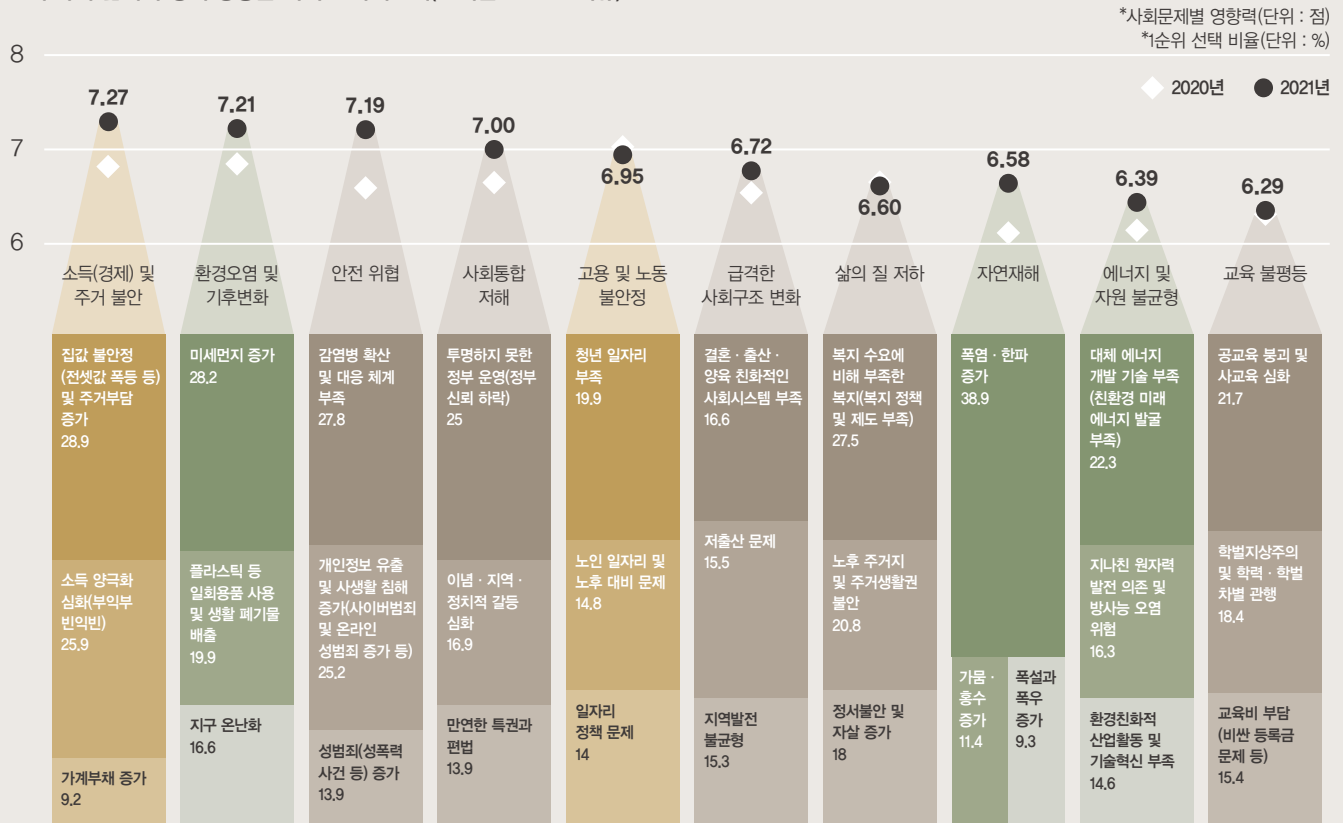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 1,000명에게 현재 나의 삶과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미치는 이슈가 무엇인지 사회문제 10대 테마별로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모든 사회문제 테마에 대해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현재(평균 6.82점)보다 미래(평균 7.09점)에 모두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 이슈는?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중에서 집값 불안정(전세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28.9%)가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의 1순위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에서는 대부분 미세먼지 증가(28.2%)를 1순위 이슈로 응답했습니다. 안전 위협 테마에서는 대부분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27.8%)을 1순위 이슈로 선택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25.2%)도 주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체감하는 이슈들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에서 50대와 60대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20대와 30대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의 부족을 선택했습니다. 삶의 질 저하 테마에서도 40~60대 이상은 1순위 이슈를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으로 꼽았지만, 20대와 30대의 1순위 이슈는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문제별 TOP 3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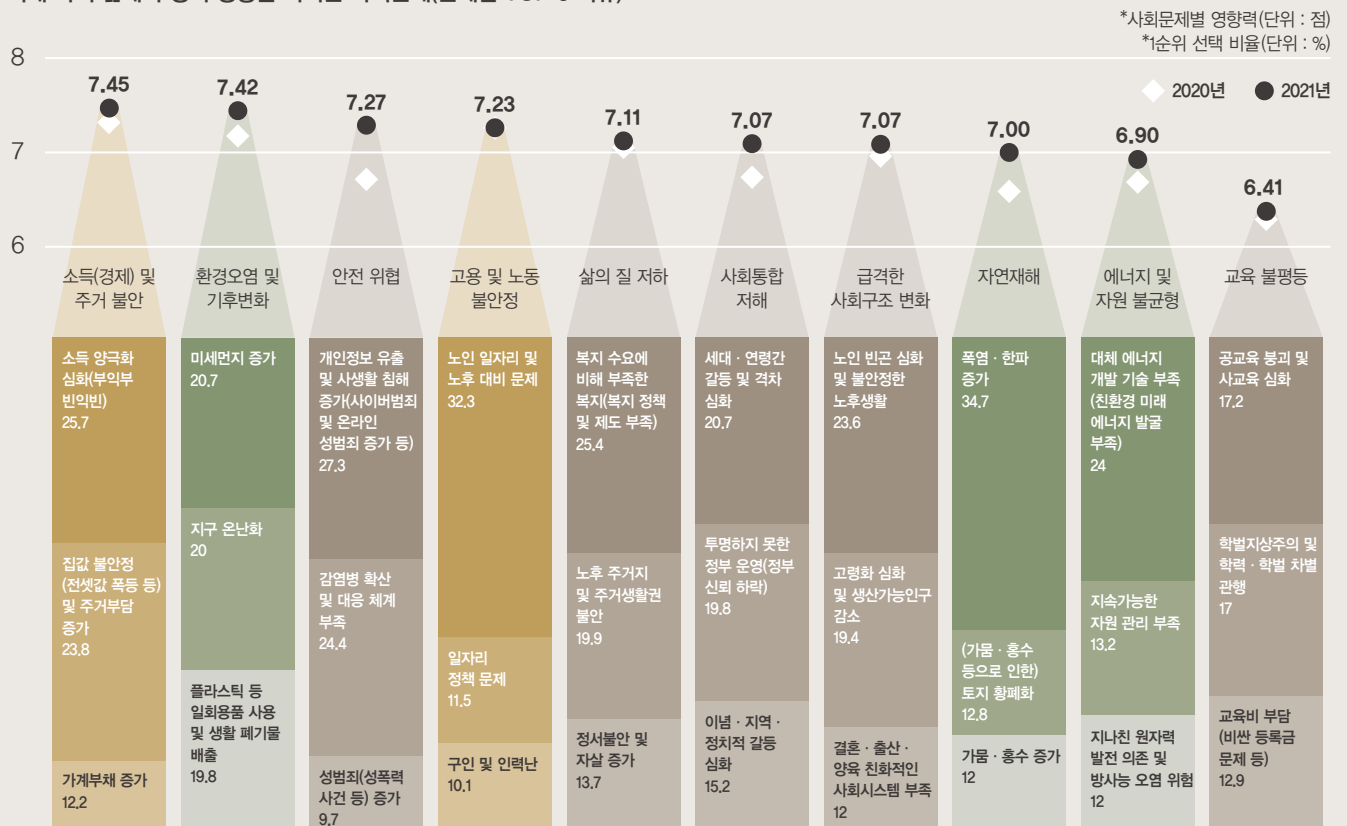
10년 후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미세먼지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폭염·한파 증가,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등 5개 이슈는 현재는 물론 10년 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에서 대부분 소득 양극화 심화(25.7%)를 10년 후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이슈로 꼽았지만, 20대만 집값 불안정 등 주거 부담 증가(33.7%)를 선택했습니다. 안전 위협 테마에서는 60대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7.3%)가 1순위에 올랐습니다.

응답자들은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현재 11.6% ▶미래 20.7%, 사회통합 저해 테마),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현재 14.8% ▶미래 32.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현재 15.2% ▶미래 23.6%,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문제별 TOP 3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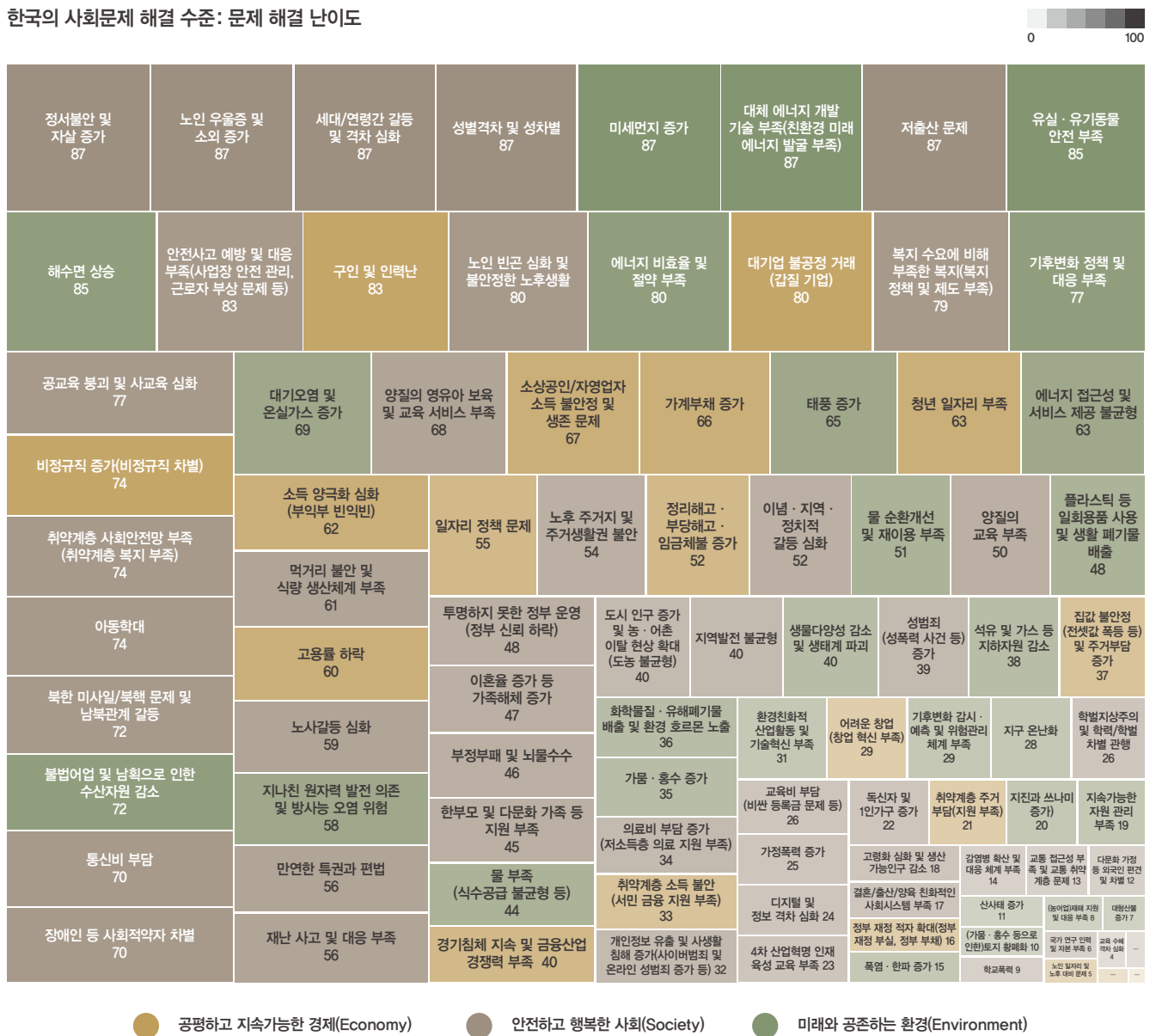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Korea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코로나19로 떠오른 정서불안 및 우울증, 미세먼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세대·연령·성별 격차 및 갈등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 수준이 OECD 37개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국내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 및 자원과 미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문제 해결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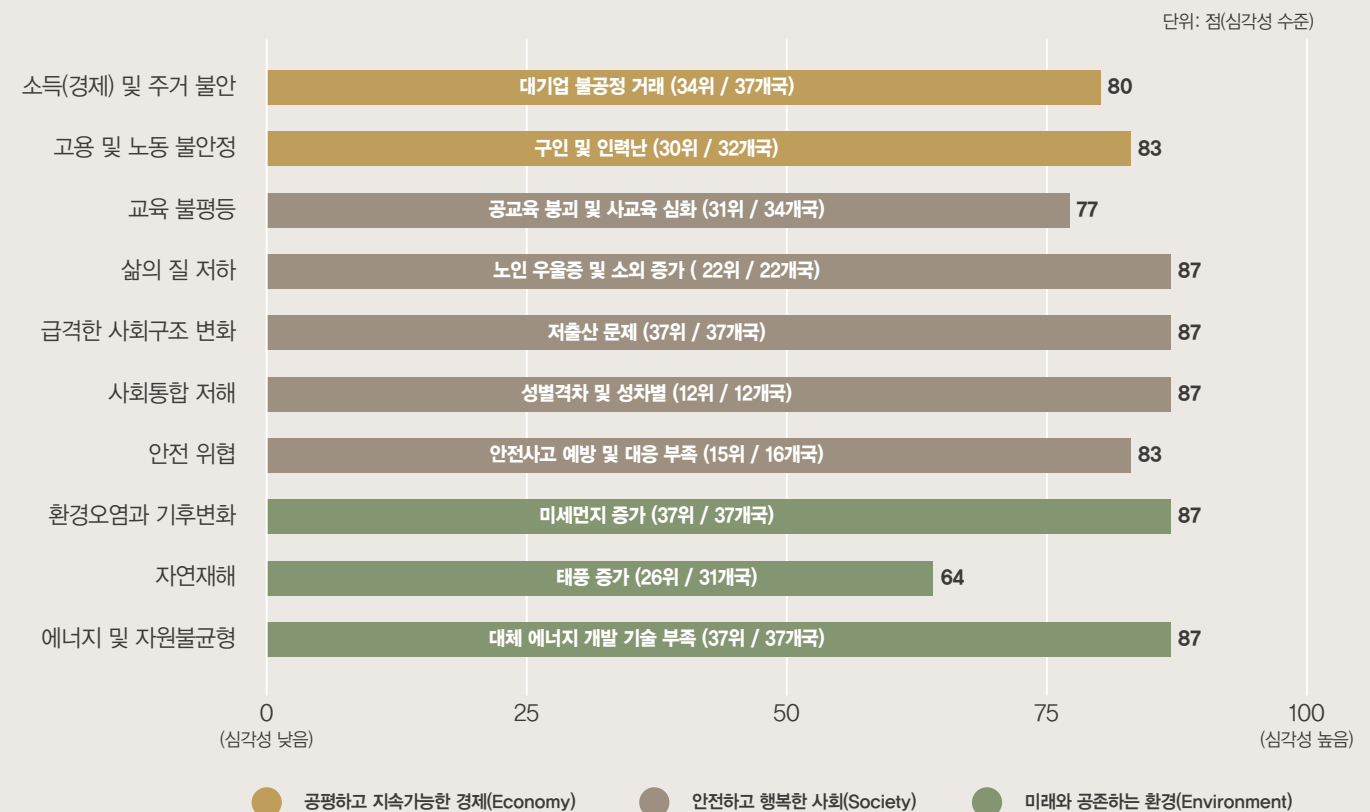
※ Note: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대 이슈 중에서 한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한 93개 이슈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순위를 '문제해결 난이도(100점 만점)'로 환산해 도출한 값이다. 문제해결 난이도는 각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별 순위를 분석했다. 이슈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 OECD 국가수는 차이가 있으며,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OECD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문제해결 수준은 어떠할까요.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 중에서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한국의 데이터를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살펴봤습니다.

2021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 Note: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제 대비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및 지배구조 개선 시급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대기업 불공정 거래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34위/37개국)가 상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시장 독과점 수준(Extent of Market dominance)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 비교한 결과(2019년 기준)입니다. 한국은 헝가리, 칠레, 콜롬비아와 함께 하위권에 속해있으며, 스위스(1위), 일본(2위), 미국(6위) 등의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22위/26개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28위/33개국) 문제 해결 수준도 OECD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구인 및 인력난 심각

취업 및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 지수(Labour Productivity)는 OECD 32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2016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현 수준의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2024년부터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1만 9,438명)’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 23만 1,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OECD 32개국 중 29위(2019년 기준)로 최하위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 부족 역시 37개국 중 31위(2019년 기준)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 불평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한국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90%) 보다 낮지만(86.2%), 민간 지출은 OECD(10%) 평균 보다 3.8%p 높습니다.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정부와 민간 지출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인 66.1% 보다 28.5%p 낮은 반면, 민간 지출은 OECD 평균(31.8%) 보다 무려 30.6%p 높습니다(2019년 OECD 교육지표).

[삶의 질 저하]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한국인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2018년,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2017년 기준, 30.2명)입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했고,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1%가 노인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정서 불안 및 자살 증가(OECD 37개국 중 37위, 2019년 기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OECD 36개국 중 33위, 2019년 기준)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산 문제 심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성별 격차 및 성차별 문제

한국의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성별 갈등 및 성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Gender Pay Gap)를 발표한 OECD 12개국 중에서 한국은 최하위(12위, 2019년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53개국 중에서 ‘유사 업무의 남녀 임금 성비’가 119위로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위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이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 OECD 주요국의 인구 10만명 당 치명적인 산업재해 건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5.3건)이 터키(7.5건)에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웨덴(1건)의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2016). OECD는 ‘안전을 위한 기업경영’ 보고서에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미세먼지 증가

OECD 37개국(2019년 기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37위)로 오염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인구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입니다. OECD의 ‘2020 삶의 질’ 보고서가 최신 집계(2017)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99.2%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0 $\mu\text{g}/\text{m}^3$ 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WHO가 제시한 초미세먼지 농도 권고치로, 이 수준을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태풍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겪지 못했던 수준의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 2020년 장마 등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해 정보(EM-DAT) 데이터 분석 결과, 2009~2019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중 한국의 태풍 누적 발생량은 13회로 OECD 31개국 중 6위 수준입니다. 태풍 누적 발생량 1위는 미국(169회)이며, 일본(48회)와 멕시코(40회)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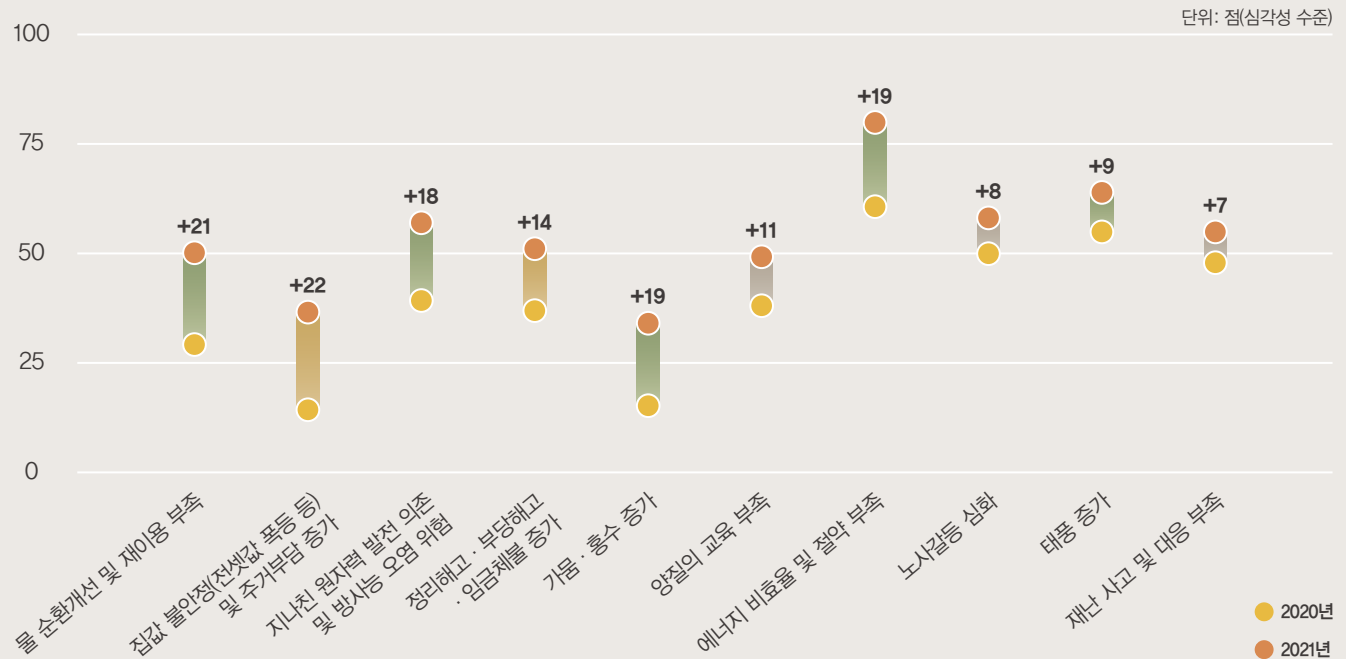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37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37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기준).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OECD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0-2021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증가 Top 10 이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진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심각성)가 2020년 대비 올해 급등한 10순위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2020-2021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증가 TOP 10



지난해와 비교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OECD 주요국 대비 심각성이 높아진 Top 10 이슈 중 50%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수준이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Wastewater treatment, OECD)은 2018년 OECD 17개국 중 5위(문제해결 난이도 29점)에서 2019년 16개국 중 11위(문제해결 난이도 50점)로 하락했습니다.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문제(Nuclear Total rate, OECD 2018년 기준)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율이 OECD 37개국 중 9위(문제해결 난이도 39점)에서 최근 10위(문제해결 난이도 57점)로 상대적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Energy productivity, OECD 2019) 부분에 있어서도 OECD 37개국 중 33위(문제해결 난이도 61점)에서 34위(문제해결 난이도 80점)로 떨어져 에너지 및 자원순환 전반에서 적극적인 개선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거 및 고용 불안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전년 대비 한국의 주택 가격 변화율은 2019년 OECD 33개국 중 32위(문제해결 난이도 14점)에서 2020년 27개국 중 13위(문제해결 난이도 36점)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2021)'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2분기말~2020년 2분기) 한국 주택가격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중하위권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지표는 전국 기준인데다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로 인해 상대적인 안정적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국민의 체감도에 맞는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정도(individual and collective dismissals, OECD 2019)도 37개국 중 10위권(문제해결 난이도 51점, ▲14점)으로 나타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Action Impact Analysis

사회문제 해결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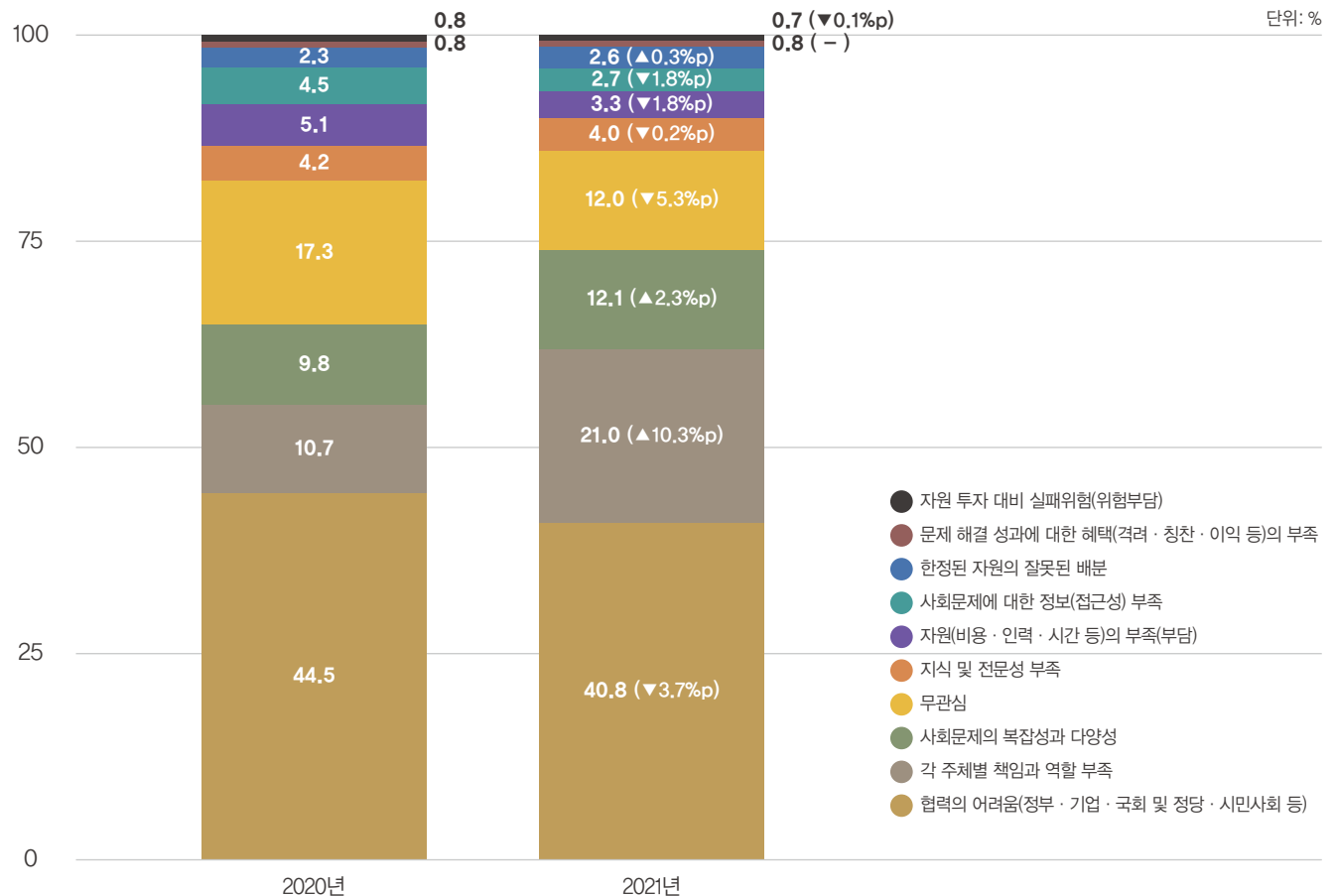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문제해결 유형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체별 책임과 역할에 기반한 협력 필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 대다수가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어렵기 때문(40.8%)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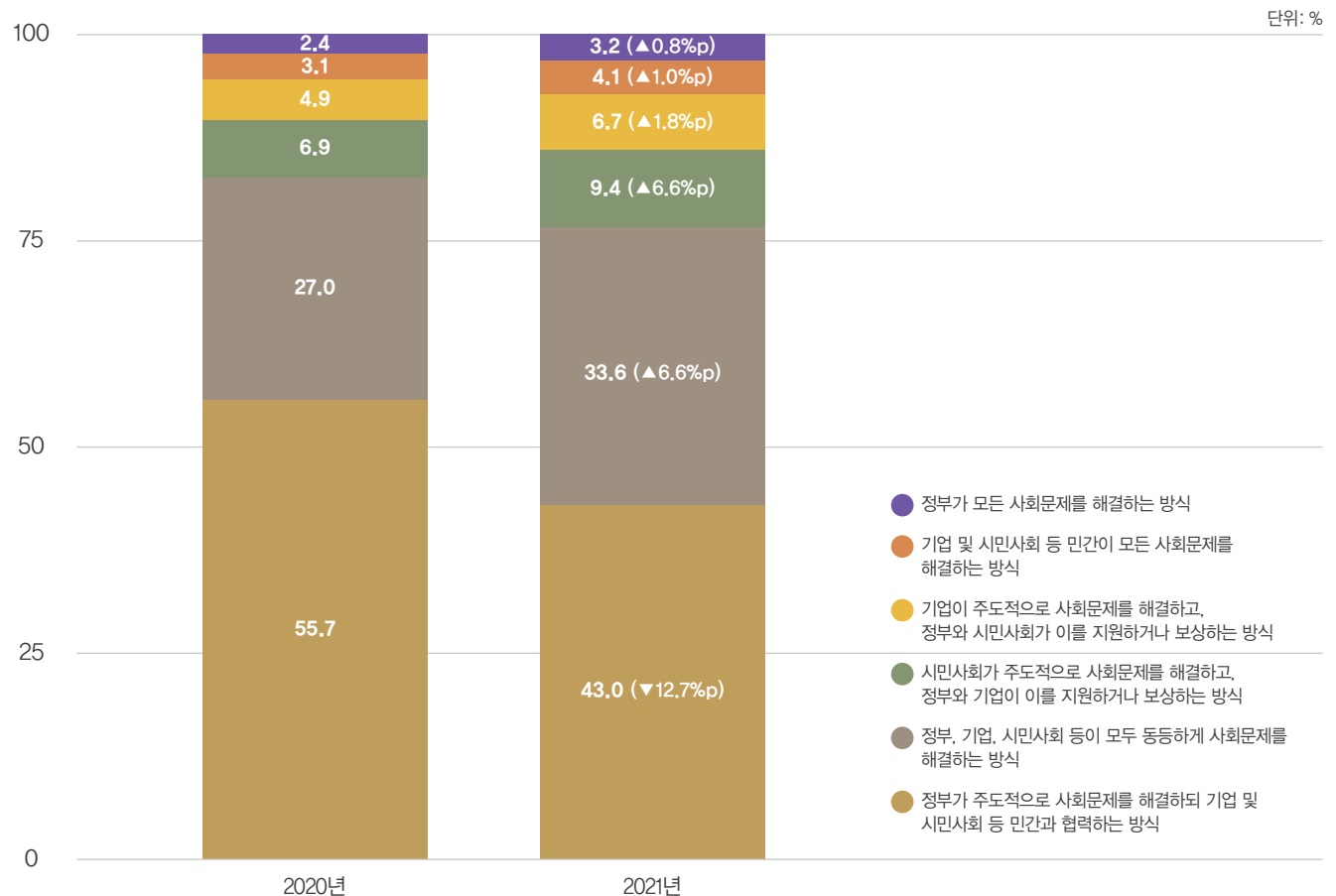
지난해와 비교해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부족(▲10.3%p)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무관심(12%, ▼-5.3%p) 보다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12.1%, ▲2.3%p)을 이유로 꼽은 국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의와 역량 투입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2020 vs 2021)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까요. 국민의 43%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12.7%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33.6%)'이 전년 대비 6.6%p 상승하며,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 (2020 vs 202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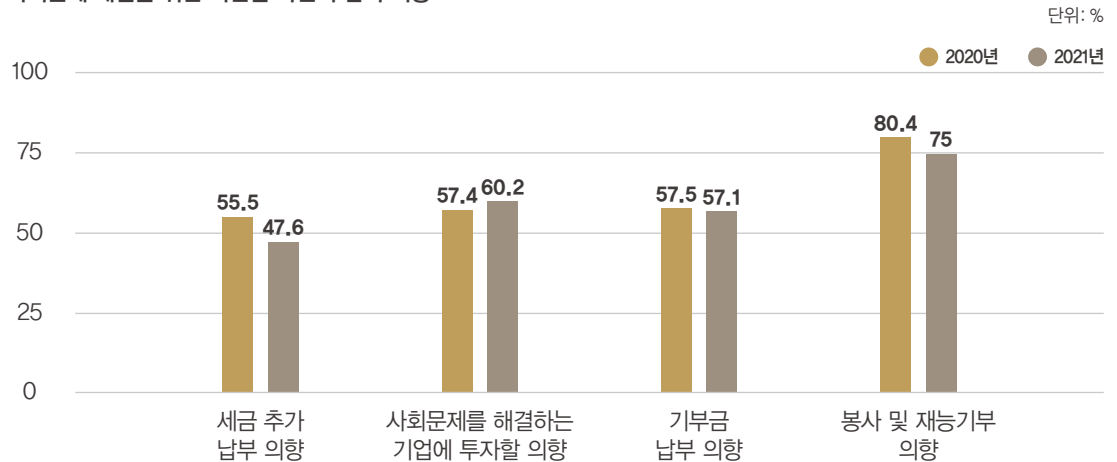
개개인의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액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

국민의 약 60%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 및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봉사 및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자(60.2%), 기부(57.1%), 세금 납부(47.6%) 의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 추가 납부 및 기부 의향은 40대(각 51.4%, 61.8%), 투자 의향은 50대(63.2%), 봉사 및 재능기부 의향은 60대(7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높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 10명당 1명(10.7%, 예탁결제원·통계청·행안부)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중에서도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은 세금,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의 참여 의향



1,000명 중

750명
(2020년: 804명)

봉사 및 재능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현재 월 평균

3시간 32분

추가 투자/납부 의향

7시간 3분

571명
(2020년: 575명)

기부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

80,228원

147,377원

476명
(2020년: 555명)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

N/A*

11.09%

*세금 납부액은 설문하지 않음.

그렇다면 국민들은 매월 얼마쯤의 비용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 및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750명은 현재 월 평균 3시간 32분을 봉사 및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매월 7시간 3분까지 추가로 봉사 및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 1,000명 중 571명은 현재 월 평균 8만 228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앞으로 14만 7,377원을 추가로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476명은 향후 월 평균 11.09%까지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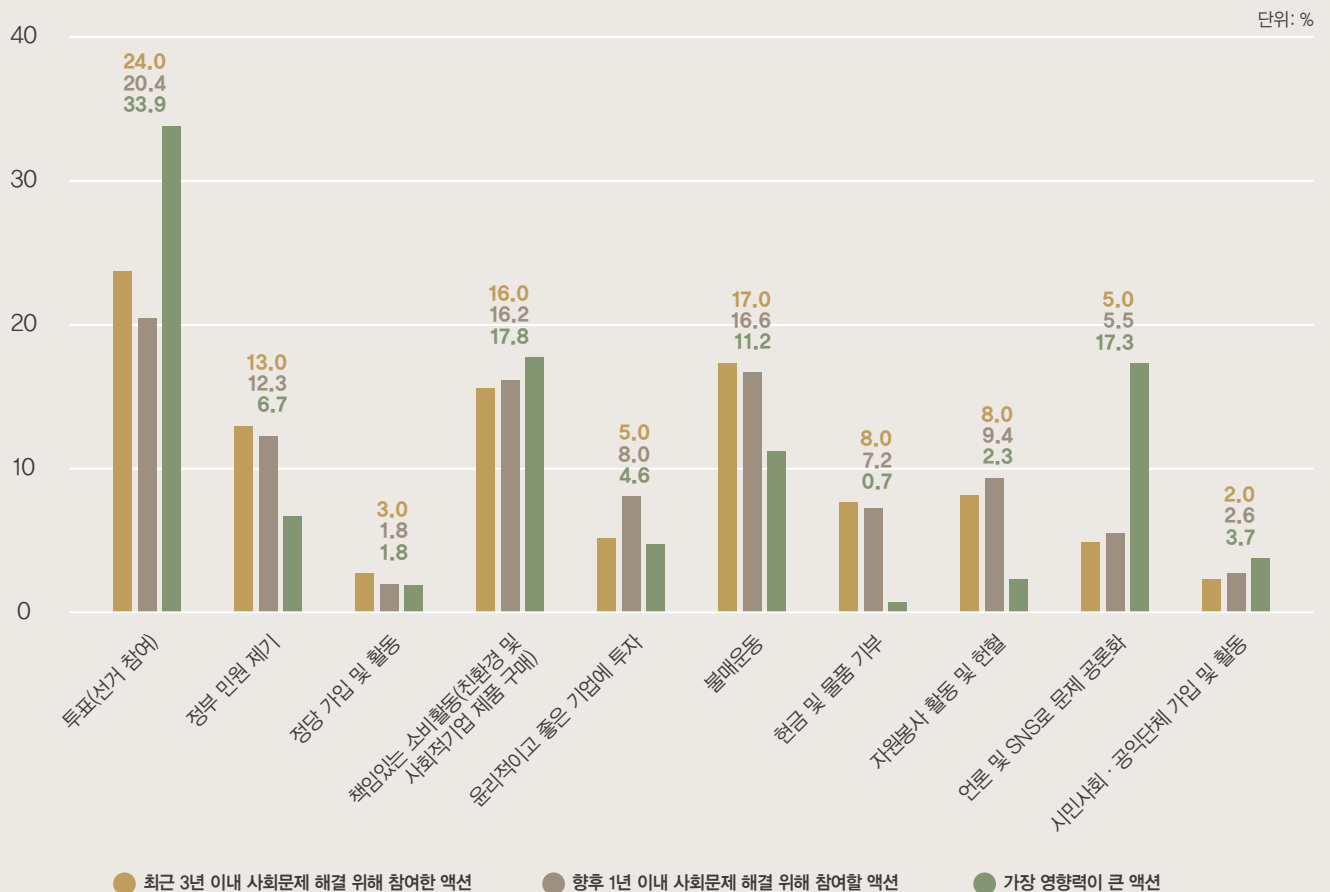
책임 투자와 윤리 소비, 의지 증가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으로 투표(33.9%)를 꼽았습니다. 책임있는 소비 활동(17.8%)과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17.3%), 불매운동(11.2%)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영향력 인식이 가장 높아진 액션은 불매운동(▲3.1%p)과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3.1%p)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문제 해결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실제 참여 의지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3년 이내에 문제해결을 위해 투표(24%), 불매운동(17%), 책임있는 소비 활동(친환경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 16%), 정부 민원 제기(13%)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윤리적이고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는 국민 수가 가장 많아졌습니다(▲2%p).

향후 1년 이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액션 유형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표(20.42%)가 가장 많았고, 불매운동(16.63%)과 책임있는 소비활동(16.19%)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액션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책임있는 소비활동(▲2.8%p)과 윤리적이고 좋은 기업에 투자(▲2%p)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사회문제에 참여한, 참여할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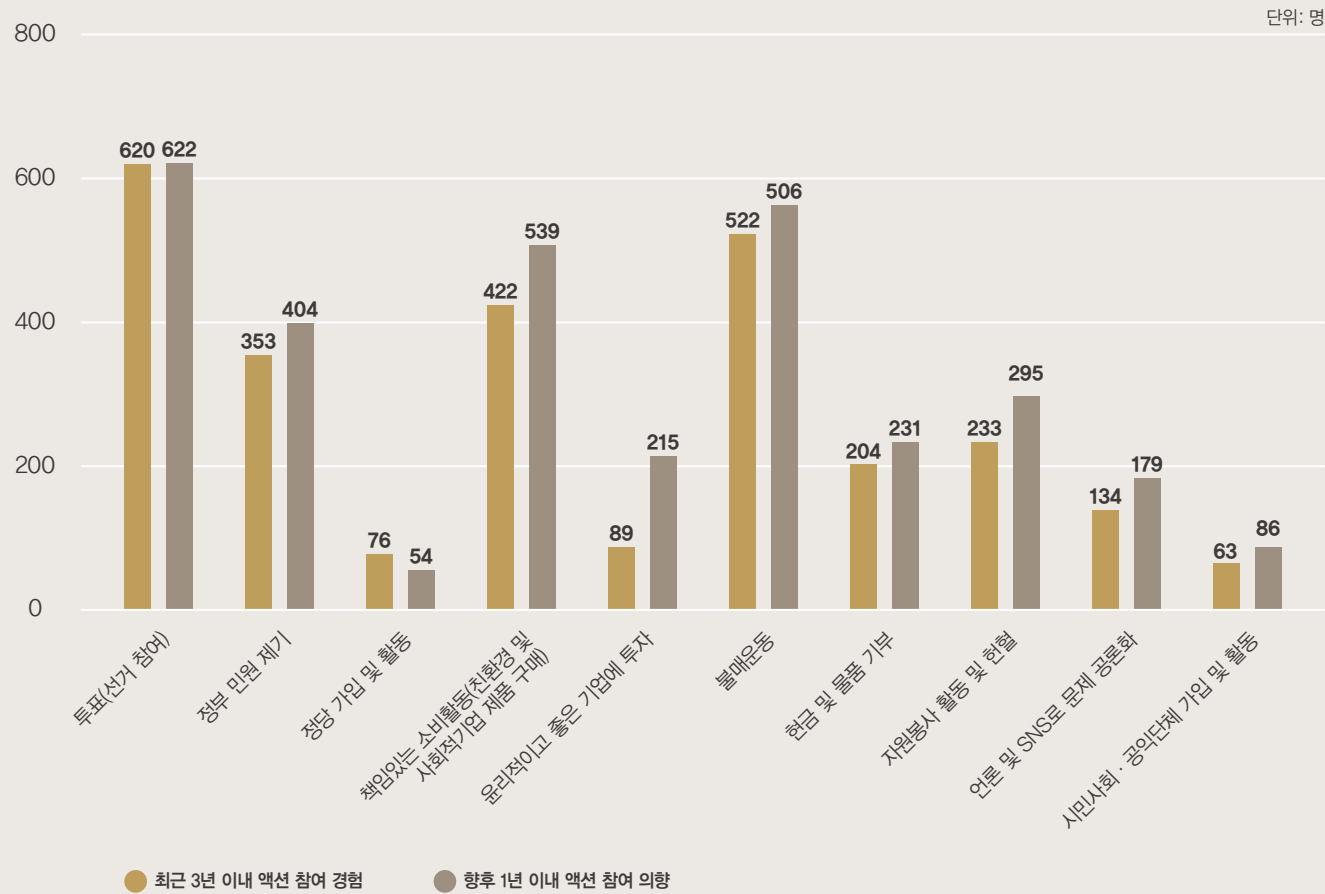
Cross Analysis: 사회문제 관심도가 인식과 액션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액션

한국인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6.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매우 관심없다 0점~매우 관심있다 10점)'를 묻은 결과로, 지난해 7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6~10점)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투표, 불매운동, 책임있는 소비활동, 정부 민원제기 순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3년 이내에 언론 및 SNS로 문제를 공론화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7.97점)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¹.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문제해결 액션 유형



1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6~10점)의 최근 3년 이내 액션 참여 경험별 평균 점수를 10% 오차범위 내(88명 이상) 표본으로 분석한 값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국민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로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52.5%)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16.1%)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방송·신문을 통한 정보 접근이 소폭 감소(▼4.6%)한 반면, 유튜브 영상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8.1%), 시민사회단체 운영 채널(5.1%)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널별로 사회문제 인식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위 3개 채널로 분석된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유튜브 영상,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문제(1위)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2위), 안전 위협(3위)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2~3위로 꼽힌 고용 및 노동 불안정과 사회통합 저해 및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 보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실제 보도한 이슈와 국민들이 채널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졌던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보다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관심 이슈가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미디어 운영 시스템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관련 정보 획득 채널 순위

실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사회문제	1 안전 위협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3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국민이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3 안전 위협
국민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3 안전 위협
국민이 블로그·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접하는 사회문제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 안전 위협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Covid-19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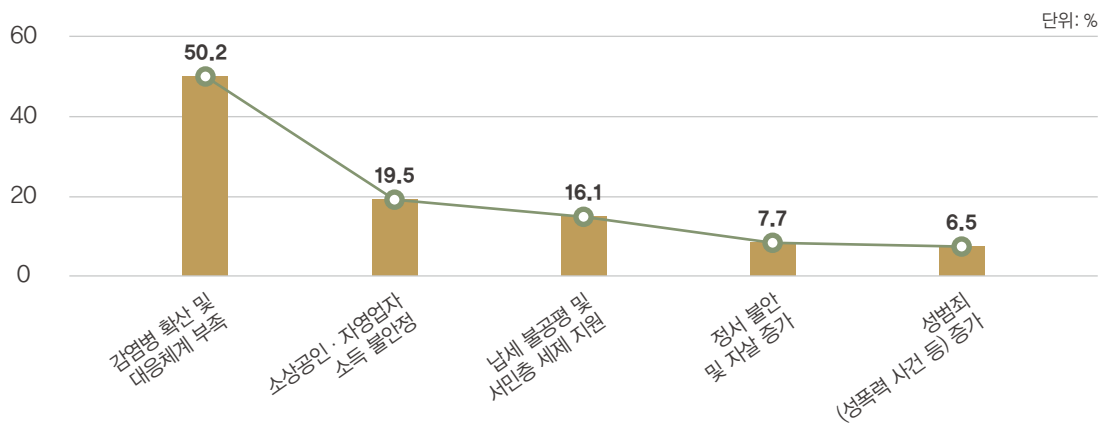
코로나와 국민의 삶

지난 1년간 대두되어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1 대한민국 사회 이슈 100’을 기반으로 주요 언론사 54곳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2019년 대비 2020년 급등 이슈 Top 5 중에서 실제 국민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1순위 문제를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역시 코로나19 이슈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50.2%)’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19.5%), 납세 불공평 및 서민층 세제 지원(16.1%), 정서 불안 및 자살 증가(7.7%)가 뒤를 이었고,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문제를 제외한 이슈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급등 이슈 Top 5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불안’과 ‘불편’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문제를 1순위 이슈로 꼽은 국민 502명에게 해당 이슈를 1순위로 선택한 이유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실제 경험을 물었습니다. 주관식 응답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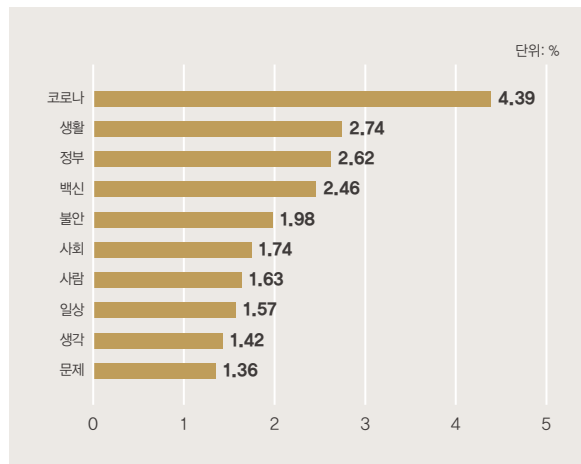
코로나를 중심으로 파생된 국민들의 가장 큰 감정은 ‘불안’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확산’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염려도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답변에서도 “배우자의 회사 동료가 코로나 양성인 나와서 걱정과 불안을 느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컸다”, “텍스크 진짜 불안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심성을 가지길”, “처음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직접적인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 몹시 불안함을 느꼈다”, “지하철이나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너무 불안한데 마스크 안쓰고 기침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 자리를 피했다” 등 실질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과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느꼈던 불편감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활동’의 ‘제약’과 ‘여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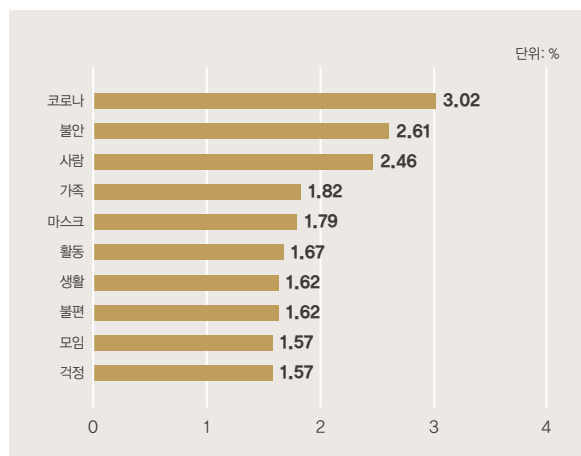
키워드로 살펴본 코로나와 국민의 삶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로 '정부'의 대응 및 대처,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실제 자신이 감염병 이슈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로는 '마스크' 착용과 '가족' 및 '모임'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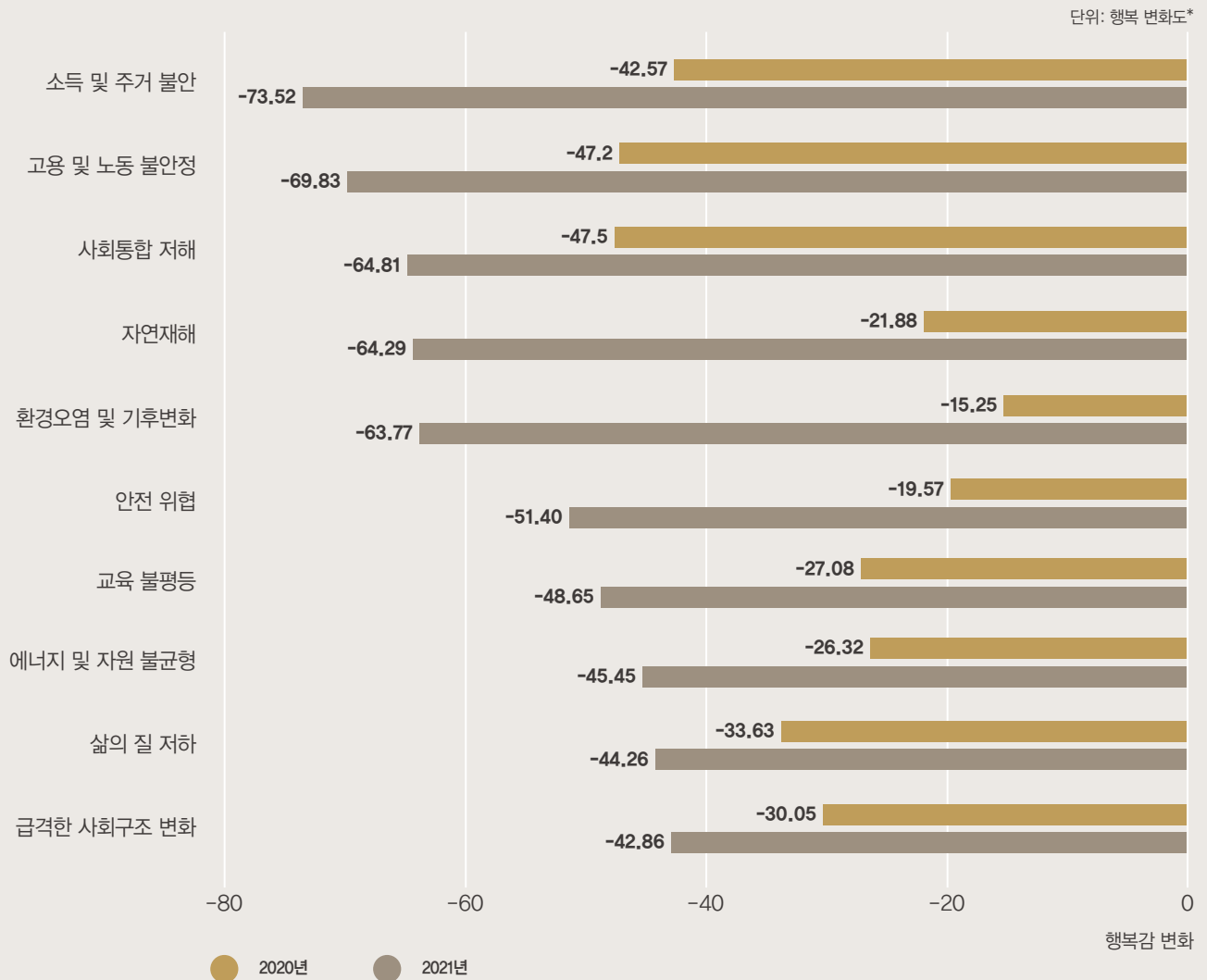
최근 삶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로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을 선택한 이유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Top 10



최근 1년 이내에 '감염병 확산 및 대응체계 부족' 문제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거나 걱정 및 불안했던 실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Top 10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행복감 변화



※ Note: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6~10점)'는 (+) 응답자 평균값에서 '더 불행해졌다(0~4점)'는 (-) 응답자 평균값을 뺀 결과값(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중립 답변 제외)

소득 및 주거 불안 경험한 국민, 코로나 이후 행복감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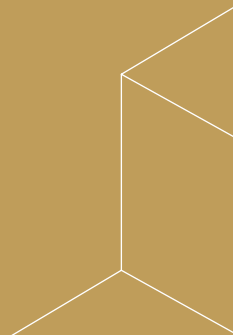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행복감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개인이 겪는 사회문제에 따라서 행복감 변화도 달라졌습니다. 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소득 및 주거 불안(-73.5) 문제가 개인의 행복과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42.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적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겪는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행복감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진 국민은 여성(-64.4), 40대(-70.5), 울산(-91.3), 월 소득 1,001만원 이상(-71.4), 자영업자(-8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응답자 평균값에서 더 불행해졌다(-)는 응답자 평균값을 빼서 '행복 변화도'를 도출(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중립 답변 제외)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연령이 낮고, 월 소득이 낮을 수록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과 달리,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중추인 40대와 자영업자의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CHAPTER 3

Analysis for Sustainability Issue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Analysis for Sustainability Issue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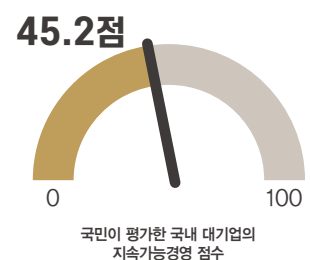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Public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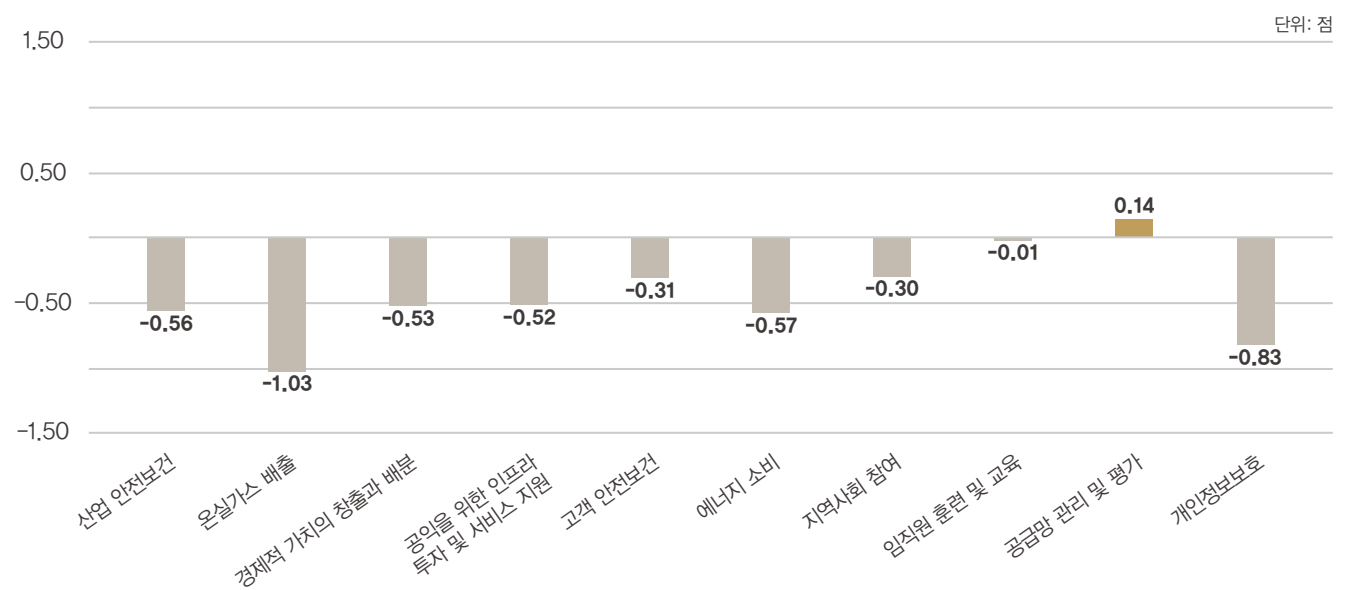
국민들은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100점 만점에 45.2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문을 위한 평가 항목은 GRI·SASB·MSCI·DJSI 등 글로벌 주요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통합한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취합 및 도출한 중대 이슈 Top 30을 집중도와 중요도 중심으로 통합한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개인정보보호 대응, 부정 평가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별로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재 수준을 ‘매우 부정적(-5점)~매우 긍정적(+5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1.03점)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0.83점), 에너지 소비(-0.57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많았습니다. 기후위기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지속가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급망 관리 및 평가(0.14점)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 결과가 나타났지만, 중립(0)에 가까워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이 평가한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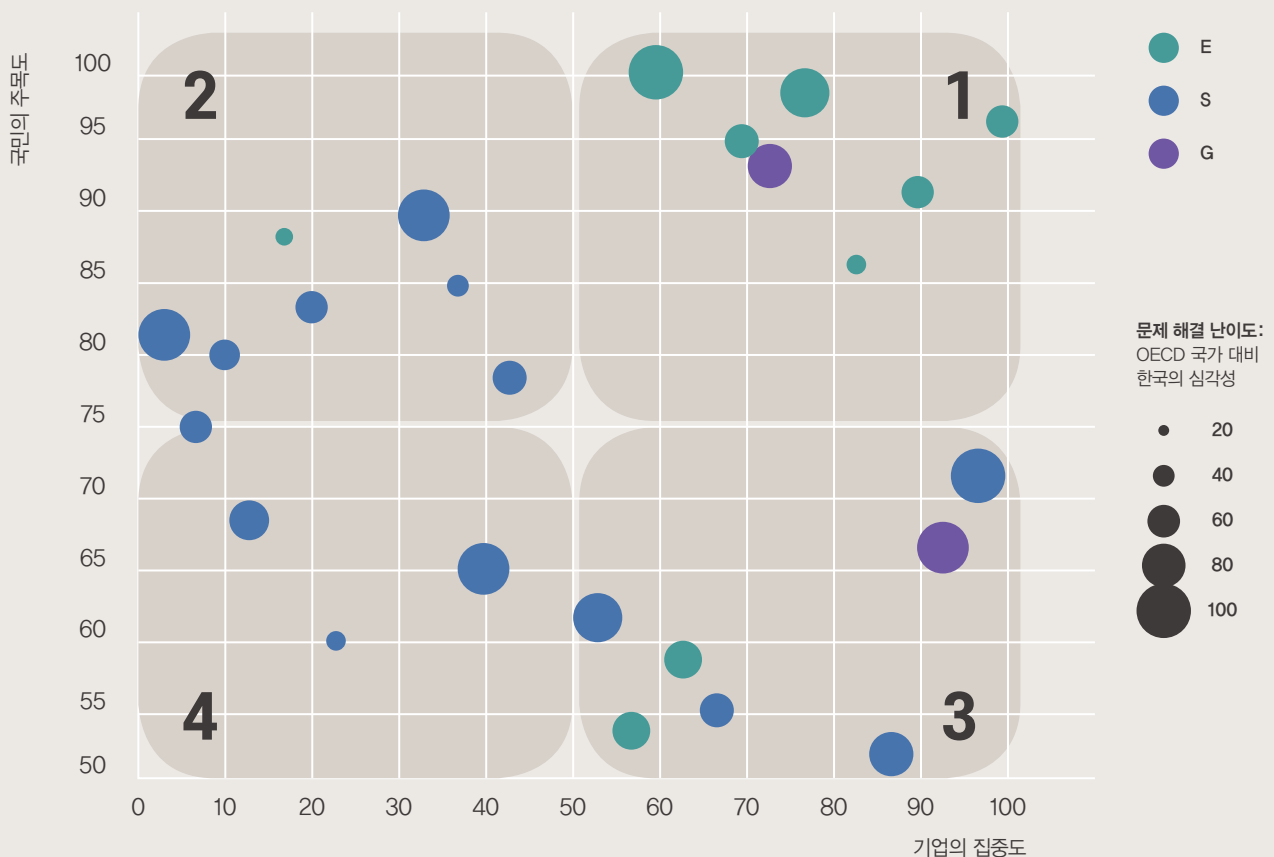
Sustainability Gap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전략

전 세계 자본 시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서도 국민들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서 사회·환경 전반에 미치는 비재무 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주요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 중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 관련 세부 이슈를 제외한 'ESG 이슈 25'를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ESG 이슈와 기업이 집중하는 ESG 이슈간 Gap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주목도(Y축)와 기업의 집중도(X축)를 바탕으로 ESG 이슈별 한국의 문제 해결 난이도를 접목해, '지속가능경영 미스매치 매트릭스(Sustainability Gap Matrix): ESG 관점'에 나타난 분포에 따라 4가지 영역별 ESG 전략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Sustainability Gap Matrix: ESG Approach



※ Note: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ESG 이슈 25'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 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ESG 이슈 25' 집중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문제해결 난이도'는 OECD 37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로,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 중에서 문제해결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이슈(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취약계층 일자리,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고등교육의 질 저하, 불임 및 난임 증가, 폭설 및 폭우 증가, 화산폭발 위험 증가)들은 각 사회문제 10대 테마의 난이도 평균치로 분석한 값이다.

1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집중하는 영역 혁신과 가치를 담은 책임경영으로 문제 해소 기여

국민과 기업이 모두 주목하는 영역으로, 현재와 미래 집중해야 하는 ESG 과제로 분석됩니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ESG 이슈는 대부분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책임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주목도 및 집중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해결 수준이 낮은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이슈는 국민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업은 기존 방식을 넘어선 혁신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확장해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E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100	60	40	87
E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97	77	20	69
E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93	100	7	30
E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90	70	20	35
G	만연한 특권과 편법	87	73	14	55
E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83	90	7	25
E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73	83	10	83

2 국민이 기대하지만 기업은 집중하지 않는 영역 사람 중심 경영으로 소셜 임팩트 창출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반면, 국민이 주목하는 영역으로 대부분 안전·건강 등 삶에 밀접한 ESG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해결 난이도도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역시 국민의 주목도 대비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슈로, 문제 해결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정서불안 및 자살증가,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역량 및 기술 지원과 다양한 주체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80	33	47	83
E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부족	77	17	60	8
S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70	37	33	16
S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67	20	47	31
S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63	3	60	87
S	진로 및 직업 교육 부족	60	10	50	26
S	지역발전 불균형	57	43	14	41

3 국민보다 기업이 더 집중하고 있는 영역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리스크 관리

국민의 주목도는 낮으나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으로, 성별·사회적약자 등 편견 및 차별 해소가 필요한 ESG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별 격차 및 성차별 해소' 및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의 주목도는 낮지만 해당 이슈들 모두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와 생물다양성 문제 역시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성별격차 및 성차별	43	97	53	87
G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33	93	60	80
S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23	53	30	70
E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17	63	47	37
S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10	67	57	38
E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7	57	50	39
S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3	87	83	52

4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도가 낮은 영역 역량 및 기술 연계형 액션 플랜으로 기회 발굴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집중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담겨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양질의 교육 부족, 저출산, 교통 접근성 부족 등 지속적인 문제 발굴과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장 자원을 투입하진 않더라도 국민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역량 및 기술을 활용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문제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저출산 문제'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조직 차원의 정책 및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이 기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 교통 문제와 같은 이슈는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액션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시너지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0	7	43	33
S	양질의 교육 부족	37	13	23	49
S	저출산 문제	30	40	10	87
S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20	23	3	13

국민은 ESG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전혀 모른다 0점~매우 잘 알고 있다 11점 척도)는 질문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ESG를 알고 있다(49.5%, 6~11점 구간)'고 답했습니다. 보통 이상의 이해도(7~11점)를 가진 국민들은 24.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SG 이해도가 높은(10~11점) 연령대는 20대(6.6%)로 나타났으며, 여성(1.6%) 보다는 남성(9.7%)이 많았습니다.

정보 접근 채널에 따라 대기업 평가가 달라질까?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채널로부터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얻는 국민들의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지인의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등 환경 부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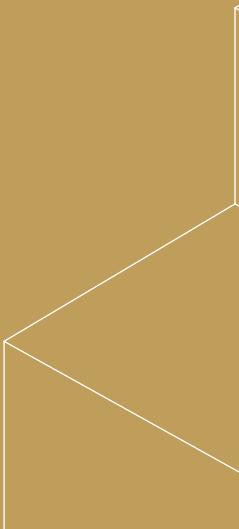
책임투자 의향과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연결될까?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현재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향이 부정 평가 국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APTER 4

Beyond 2021

우리가 만드는 미래



Conclusion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사회이슈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미디어 분석,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등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 전략 방안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①Do First: 우선순위 영역, ②Do Plan: 주요 관심 영역, ③Do Monitor: 모니터링 영역, ④Delegate: 위임과 실험 영역 등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1 Do First: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커지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영역(Do First)은 문제 해결이 어렵고(난이도 50점 이상),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와 임팩트가 모두 높기 때문에 해당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와 기회가 모두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과 미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5	95	79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84	97	80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9	99	61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74	85	8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68	88	87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91	91	53
	구인 및 인력난	66	71	83
	가계부채 증가	69	84	65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49	75	87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45	45	87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43	48	51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22	49	60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19	20	70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18	23	62
	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11	30	50
	해수면 상승	2	3	85

※ 현재와 미래 임팩트 및 문제 해결 난이도를 모두 합산한 값으로 Top 20 이슈를 도출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우선순위로

일반 국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국민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 것이라 예상되는 이슈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과 가계 및 국가 경제 불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현재와 미래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임팩트)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현재보다 미래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한 설문 결과, 지난해 보다 가장 많은 예산(▲1조 230억원)을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자 했습니다(p.17).

특히 올해는 구인 및 인력난,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문제가 해당 영역에 새롭게 편입되어, 국가 경제 불안으로 인한 미래 양질의 일자리 고민이 필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주체로 기업의 역할이 정부 다음으로 나타난 만큼(p.16), 정부의 고용 정책과 기업의 노동 불안 해소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빈곤 및 우울증·소외 증가,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문제도 현재와 미래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임팩트와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및 노후 불안정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가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해 다가올 미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불안, 주체간 협력 필요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문제는 국민의 현재와 미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문제해결 난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만큼 기업의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우선순위 영역(Do First)에 포함된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실행과 장기적 관점의 대비가 시급합니다.

물 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해수면 상승,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문제도 올해 우선순위 영역(Do First)에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인식이 국민 미래의 삶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가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 Do Plan: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사회문제



주요 관심 영역(Do Plan)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난이도 50점 미만)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임팩트가 높지만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영역(Do First)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과 역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보다는 기회가 큰 영역으로 전략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3	96	31
지구 온난화	77	96	27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2	90	17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81	100	5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3	80	33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58	62	39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62	81	15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57	60	21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25	65	43
양질의 교육 부족	35	40	49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5	61	3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38	59	22
지진과 쓰나미 증가	41	47	19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39	51	10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19	58	23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29	30	37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31	32	32
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이탈 현상 확대(도농 불균형)	25	27	39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37	41	8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17	34	28

※ 현재와 미래 임팩트 및 문제 해결 난이도를 모두 합산한 값으로 Top 20 이슈를 도출했다.

비대면·온라인 및 교육 격차 해소 필요

코로나 19로 인해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ICT 온라인 사용과 정보 격차 및 보안 이슈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문제는 지난해 '위임과 실행 영역(Delegate)'에서 올해 '주요 관심 영역(Do Plan)'에 새롭게 편입됐고,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문제도 현재보다 미래 떠오를 신규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도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ICT 기술 및 정보 격차와 보안 문제 대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 부족,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문제도 올해 새롭게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가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모두 현재보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관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을 통한 임팩트가 크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위기 보다 기회가 큰 이슈들이 포함되는 만큼 자원 및 역량의 세밀한 전략적 계획을 통해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위험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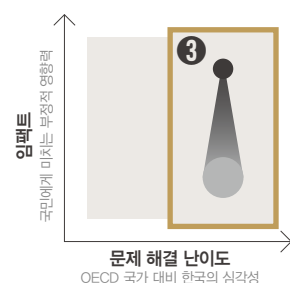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지구 온난화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국민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농어업) 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문제가 올해 새롭게

‘주요 관심 영역(Do Plan)’ 영역에 등장했습니다. 아직까진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자연재해 발생률이 낮아 문제 해결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 위기를 대비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편입된 지구 온난화 문제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과거 30년 평균 대비 1.6℃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 지난 109년간 한국의 온난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 보다 0.8℃ 더 올랐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문제가 현재보다 미래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새롭게 포함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책임 및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p.15), 정부 및 기업 등 주요 주체의 자원 및 역량이 모두를 위한 미래 환경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 Do Monitor: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지만,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작아지는 사회문제



모니터링 영역(Do Monitor)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낮아지지만,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 꾸준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 더 나은 사회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 영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성별격차 및 성차별	70	68	87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86	82	87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6	2	85
미세먼지 증가	96	89	87
저출산 문제	85	76	87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59	54	83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10	7	80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42	35	80
통신비 부담	45	45	77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64	57	74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다양성·포용성 증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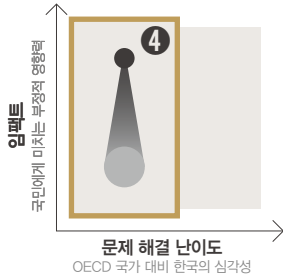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으로 반부패 및 다양성과 포용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정서불안 및 자살증가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니터링 영역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수준은 37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며,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주요 12개국 중 꼴찌(2019)입니다. 성별 격차 및 성차별, 대기업 불공정 거래 문제의 경우 10년 후 미래보다 현재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매년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문제는 미래 임팩트는 현재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기업에 바라는 국민의 이슈 주목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p.52), 기업의 철저한 사업장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 부상 문제를 꾸준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상청(2020), 1912~2020 정기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발표

4 Delegate: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도 작아지는 사회문제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현재보다 미래에 작아지며, 문제 해결 난이도도 낮은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등이 모든 액션을 주도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나 개개인의 주도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자원 및 역량 투입 시 후순위로 배분하여 다른 문제로 인한 위기에 먼저 대비하는 것이 권장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에 커지는 이슈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해결 난이도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65	53	30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83	79	25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60	55	18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90	78	16
	폭염·한파 증가	94	93	14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21	13	13
	학교폭력	28	17	9
	대형산불 증가	27	18	7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50	37	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67	50	2

※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인식 개선과 미래 대비 전략

위임과 실험 영역(Delegate)에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등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elegate 영역에 포함된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문제와 학교폭력 이슈처럼 개개인의 행동 변화가 중요한 이슈는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한파·대형산불 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이슈들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 주체로서 개개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증가한 만큼(p.16), 각자의 삶 속에서 자원관리 및 친환경 인식개선 캠페인과 액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주거비 부담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실제 개인 당 방의 개수·위생 시설 없는 주택 거주자 비율 등은 평균 이하로 '주거의 질(質)'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연결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이 일상화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는 일치하나,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이 높은 '사회(Society)'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다양한 주체간 협력으로 미래 위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Appendix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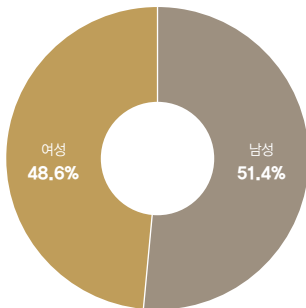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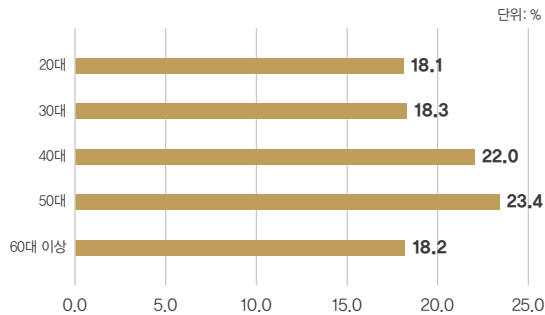
- **설문 대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 **설문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응답
- **설문 기간:** 2021년 5월 7일 ~ 13일
- **표본 오차:** $\pm 3.10\%P(95\% \text{ 신뢰수준})^*$ *표집 상의 비율 할당 여부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임의추출 방식 활용

응답자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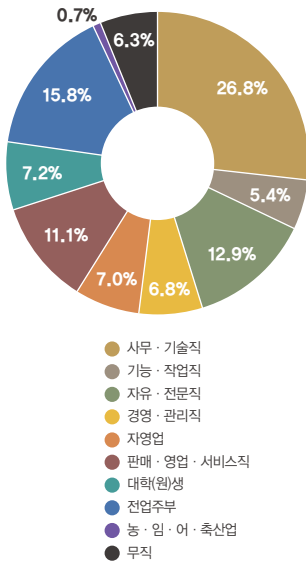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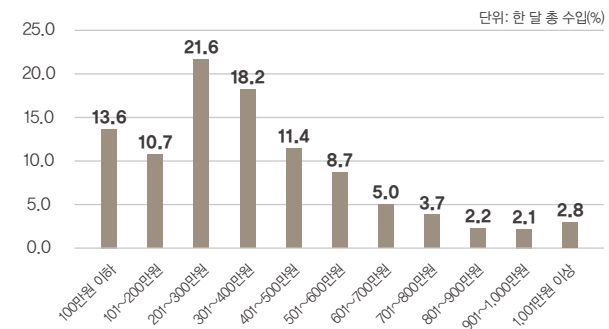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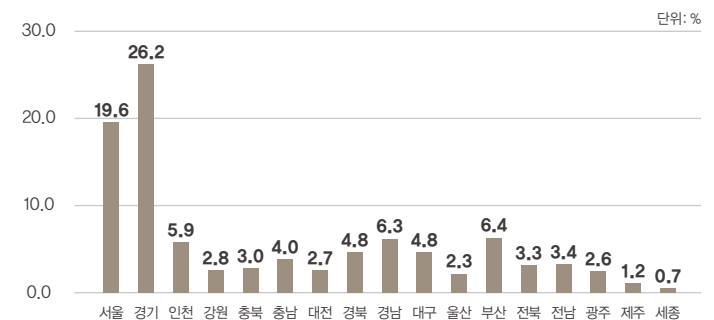
직업



소득수준



지역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 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1 대한민국 사회문제 연구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중요한 사회문제를 진단하는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선택과 공동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는 연구 리포트에 반영됩니다.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Section 1 사회인식 및 가치관

Q1. 아래에 서술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은 대체로 어디에 가깝습니까?

(각 문항에 11점 척도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중간 5점 - 매우 그렇다 10점)

- Q1.1. 나는 행복하다
- Q1.2.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사회다
- Q1.3. 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
- Q1.4. 나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 신뢰, 존중을 느낀다
- Q1.5. 나는(사회적 배제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고 있다
- Q1.6. 나는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 Q1.7. 5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
- Q1.8. 5년 전에 비해 나의 가정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

Section 2 사회문제 영향력: 현재

Q2.1. 지금부터는 귀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래 각 항목별 보기를 보고, 현재 귀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를 1개만 선택해 주세요. (항목별 보기 10개 중 택 1)

항목	사회 이슈 (보기)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①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②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③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④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문제, ⑤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⑥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⑦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⑧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⑨가계부채 증가, ⑩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①정리해고 · 부당해고 · 임금체불 증가, ②고용률 하락, ③청년 일자리 부족, ④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⑤구인 및 인력난, ⑥일자리 정책 문제, ⑦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⑧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⑨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⑩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교육 불평등	①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②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③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④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⑤진로 및 직업 교육 부족, ⑥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⑦양질의 교육 부족, ⑧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⑨고등교육의 질 저하, ⑩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①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②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③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④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⑤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⑥통신비 부담, ⑦불임 및 난임 증가, ⑧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⑨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⑩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①저출산 문제, ②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이탈 현상 확대(도농 불균형), ③지역발전 불균형, ④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⑤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⑥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⑦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⑧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⑨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시설퇴소 아동 보호 부족, ⑩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①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②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③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④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⑤성별격차 및 성차별, ⑥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⑦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⑧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⑨노사갈등 심화, ⑩만연한 특권과 편법
안전 위협	①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②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③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④아동학대, ⑤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⑥학교폭력, ⑦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⑧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⑨가정폭력 증가, ⑩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①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②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③지구 온난화, ④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⑤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⑥미세먼지 증가, ⑦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⑧해수면 상승, ⑨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⑩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자연재해	①폭염·한파 증가, ②태풍 증가, ③가뭄·홍수 증가, ④폭설과 폭우 증가, ⑤지진과 쓰나미 증가, ⑥(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⑦화산폭발 위험 증가, ⑧산사태 증가, ⑨(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⑩대형산불 증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①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②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③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④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⑤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⑥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⑦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⑧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⑨물 순환개선 및 재이용 부족, ⑩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Q2.2. 그렇다면 선택하신 사회 이슈 중 현재 귀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10개 사회 이슈의 순위를 선정합니다. 1~10순위 선택형)

Q2.3. 지금부터는 현재 귀하의 삶에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각 문항에 11점 척도로 응답, 영향이 없다 0점 - 중간 5점 - 매우 영향이 크다 10점)

- Q2.3.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3. **교육 불평등**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4. **삶의 질 저하**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5.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6. **사회통합 저해**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7. **안전 위협**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8.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9. **자연재해**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Q2.3.10.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Section 3 사회문제 영향력: 미래

Q3.1. 지금부터는 귀하의 미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귀하의 10년 후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줄 사회이슈를 1개만 선택해주세요.
(항목별 보기 10개 중 택 1, 항목별 사회 이슈는 Q2.1.의 내용과 동일)

Q3.2. 지금부터는 미래에 다음의 사회문제들이 귀하의 삶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각 문항에 11점 척도로 응답, 영향이 없다 0점 - 중간 5점 - 매우 영향이 크다 10점)

- Q3.2.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3. **교육 불평등**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4. **삶의 질 저하**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5.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6. **사회통합 저해**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7. **안전 위협**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8.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9. **자연재해**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3.2.10.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문제는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Section 4 사회문제 해결 평가

Q4.1. 지금부터는 사회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아래 각 항목별 사회문제에 대한 주된 원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회문제 항목별 책임 주체 택 1)

사회문제 항목	책임 주체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③교육 불평등, ④삶의 질 저하,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⑥사회통합 저해, ⑦안전 위협,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⑨자연재해,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①정부, ②국회 및 정당, ③기업, ④시민사회단체, ⑤미디어, ⑥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⑦국제기구, ⑧외국(타 국가), ⑨개개인

Q4.2. 아래 각 항목별 사회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회문제 항목별 책임 주체 택 1)

사회문제 항목	책임 주체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③교육 불평등, ④삶의 질 저하,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⑥사회통합 저해, ⑦안전 위협,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⑨자연재해,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①정부, ②국회 및 정당, ③기업, ④시민사회단체, ⑤미디어, ⑥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⑦국제기구, ⑧외국(타 국가), ⑨개개인

Q4.3. 귀하께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 | |
|------------------------------------|------------------------------------|
|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부족 | ⑥ 사회문제의 복잡성/다양성 |
| ② 자원(비용, 인력, 시간 등)의 부족(부담) | ⑦ 한정된 자원의 잘못된 배분 |
| ③ 지식 및 전문성 부족 | ⑧ 자원 투자 대비 실패위험(위험부담) |
| ④ 무관심 | ⑨ 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혜택(격려, 칭찬, 이익 등) 부족 |
| ⑤ 협력의 어려움(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 ⑩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부족 |

Q4.4. 귀하께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②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
- ③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④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
- ⑤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
- ⑥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Section 5 사회문제 해결 액션

Q5.1. 귀하께서는 평소에 사회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정도에 선택해주세요.

(11점 척도, 전혀 관심이 없다 0점 - 중간 5점 - 매우 관심이 있다 10점)

Q5.2. 귀하께서는 평소에 사회문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어떤 곳에서 주로 접하거나 공유하십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7개까지 선택해주세요.

- ①지인의 문자/카카오톡
- ②유튜브 영상
- ③정부/지자체 운영 채널(홈페이지, 게시판, SNS 채널 등)
- ④기업 운영 채널(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채널 등)
- ⑤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 운영 채널(홈페이지, 소식지, SNS 채널 등)
- ⑥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 ⑦개인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⑧블로그, 온라인 카페(네이버/다음) 게시물
- ⑨도서 및 출판물
- ⑩집회/시위, 공청회,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활동
- ⑪기타(직접 입력)

Q5.3. 귀하께서 최근 3년 내(2018년 4월 이후)에 사회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형 1~10개 선택)

- ① 선거에 투표를 했다
- ②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했다
- ③ 정당에 가입해 (의견 표명)활동을 했다
- ④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친환경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 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펀드가입 포함)했다
- ⑥ 사회문제를 일으킨 비윤리적인 기업의 불매운동에 참여했다
- ⑦ 현금/물품 등을 기부했다
- ⑧ 자원봉사 활동/헌혈에 참여했다
- ⑨ 언론 및 SNS를 통해 사회문제를 공론화했다 ⑩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Q5.4. 귀하께서 향후 1년 이내(∼2022년 5월)에 사회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참여하실 행동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형 1∼10개 선택)

- ①투표를 하겠다 (만약 1년 이내에 선거가 있다면)
- ②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겠다
- ③정당 가입해 활동하겠다
- ④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친환경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 ⑤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펀드 가입 포함)하겠다
- ⑥사회문제를 일으킨 비윤리적인 기업의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
- ⑦현금/물품 등을 기부하겠다
- ⑧자원봉사/헌혈에 참여하겠다
- ⑨언론 및 SNS를 통해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겠다
- ⑩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겠다

Q5.5.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행동)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현금/물품 기부
- ②정부 민원 제기
- ③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
- ④책임있는 소비 활동
- ⑤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 ⑥투표(선거 참여)
- ⑦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 ⑧불매운동
- ⑨정당 가입 및 활동
- ⑩윤리적이고 좋은 기업에 투자

Q5.6.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문제에 얼마큼의 예산을 배정하시겠습니까? 자원을 배분할 사회문제의 총합이 100이 되도록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숫자 입력)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③교육 불평등	
④삶의 질 저하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⑥사회통합 저해	
⑦안전 위험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⑨자연재해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합 계	100

Q5.7.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Q5.7.1로 이동)
- ② 아니요,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은 없습니다. (▶Q5.8로 이동)

Q5.7.1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몇 % 정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숫자 입력) _____%

Q5.7.2 귀하께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1개만 선택해주세요.

- | | |
|-----------------|---------------|
|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 ⑥사회통합 저해 |
|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 ⑦안전 위험 |
| ③교육 불평등 |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
| ④삶의 질 저하 | ⑨자연재해 |
|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

Q5.8.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투자할 있습니다. (▶Q5.8.1로 이동)
- ② 아니요, 투자할 의향이 없습니다. (▶Q5.9로 이동)

Q5.8.1.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추가로 더 투자할 금액은 매월 얼마 정도입니까? (숫자 입력)

현재 투자금 : 매월 _____만원 / 추가 투자금 : 매월 _____만원

Q5.8.2. 귀하께서 투자하신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이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 | |
|-----------------|---------------|
|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 ⑥사회통합 저해 |
|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 ⑦안전 위험 |
| ③교육 불평등 |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
| ④삶의 질 저하 | ⑨자연재해 |
|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

Q5.9.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Q5.9.1로 이동)
- ② 아니요, 기부할 의향이 없습니다. (▶5.10로 이동)

Q5.9.1.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고 있는/추가로 더 낼 기부금은 매월 얼마 정도입니까? (숫자 입력)

현재 기부금 : _____만원 / 추가 기부금 : _____만원

Q5.10.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Q5.10.1로 이동)
- ② 아니요, 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Q5.11로 이동)

Q5.10.1.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추가로 더 할 봉사 및 재능기부 시간은 매월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 입력)

현재 사용하는 시간 : 매월 _____만원 / 추가로 사용할 시간 : 매월 _____만원

*1시간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현재 봉사나 재능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칸에는 0을 입력해주세요.

Q5.11. 귀하께서는 국민들의 기부금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 | |
|-----------------|---------------|
| ①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 ⑥사회통합 저해 |
| ②고용 및 노동 불안정 | ⑦안전 위험 |
| ③교육 불평등 | ⑧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
| ④삶의 질 저하 | ⑨자연재해 |
| 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 ⑩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

Special Survey 1: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

Q6.1.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행해졌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행복해졌다 +5점)

Q6.2.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부정적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긍정적 +5점)

Q6.3.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 +5점)

Q6.4.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이웃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 +5점)

Q6.5.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처음 만난 사람(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 +5점)

Q6.6.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 +5점)

Q6.7.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음의 사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1점 척도,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없다 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 +5점)

- | | | |
|----------|---------------|-----------|
| ①정부 | ④시민사회단체 | ⑦국제기구 |
| ②국회 및 정당 | ⑤미디어 | ⑧외국(타 국가) |
| ③기업 | ⑥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 ⑨개개인 |

Special Survey 2: 2020-2021 Hot Topic

Q7.1. 아래 서술된 사회문제는 당신의 삶에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사회문제별 11점 척도 입력, 전혀 영향이 없다 0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영향이 크다 10점)

- ①감염병 확산 및 대응체계 부족
- ②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 ③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 ④납세불공평 및 서민층 세제 지원 부족
- ⑤정서 불안 및 자살 증가

Q7.2. 아래 사회문제 중에서 최근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를 1개 선택하세요.

(택 1, 항목별 문제는 Q7.1.의 내용과 동일)

Q7.2.1. 위 질문에서 1순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Q7.2.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이슈로 인해 당신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거나 걱정 및 불안했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주관식)

Special Survey 3: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Q8.1. 당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주요 주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1점 척도, 전혀 모른다 0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잘 알고 있다 10점)

Q8.2. 아래에 제시된 이슈 및 문제에 대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현재 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이슈 및 문제별 11점 척도 입력, 매우 부정적 -5점 - 보통이다 0점 - 매우 긍정적 +5점)

- | | |
|-------------------------|--------------|
| ①산업 안전보건 | ⑥에너지 사용 |
| ②온실가스 배출 | ⑦지역사회 참여 |
| ③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 ⑧임직원 훈련 및 교육 |
| ④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 ⑨공급망 관리 및 평가 |
| ⑤고객 안전보건 | ⑩개인정보보호 |

Q8.3. 아래 항목별 보기를 보고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1개만 선택해 주세요.

(항목별 보기 중 택 1)

항목	사회 이슈 (보기)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①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기업), ②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③가계부채 증가
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①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②청년 일자리 부족, ③고용률 하락
교육 불평등	①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②진로 및 직업 교육 부족, ③양질의 교육 부족
삶의 질 저하	①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②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③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①지역발전 불균형, ②저출산 문제, ③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①성별격차 및 성차별, ②만연한 특권과 편법, ③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안전 위협	①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②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③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①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②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③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①(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②(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③(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부족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①환경친화적 산업활동 및 기술혁신 부족, ②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③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Q8.4. 선택하신 이슈 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10개 사회문제의 순위를 선정해주셔야 합니다. 1~10순위 선택형)

Q8.5. 위에서 선택하신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이 최근 당신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은 어떠한가요?

(각 문항별 11점 척도 입력, 매우 부정적 -5점 - 보통이다 0점 - 매우 긍정적 +5점)

기본 정보

Q9.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택 1)

- ①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 ②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장사 및 가족 종사자, 개인택시 운전자 등)
- ③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④기능,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
- ⑤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교 교사, 향해사 등)
- ⑥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기업 부장 이상의 위치, 교장 등)
- ⑦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 ⑧전업주부
- ⑨학생
- ⑩무직
- ⑪기타(직접 입력)

Q9.2.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택 1)

-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중학교
- ③고등학교
- ④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⑤대학
- ⑥대학원 이상

Q9.3. 귀하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 평균으로 말씀해주세요. (택 1)

- | | |
|------------|--------------|
| ①100만원 이하 | ⑦601~700만원 |
| ②101~200만원 | ⑧701~800만원 |
| ③201~300만원 | ⑨801~900만원 |
| ④301~400만원 | ⑩901~1,000만원 |
| ⑤401~500만원 | ⑪1,001만원 이상 |
| ⑥501~600만원 | |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발행일 2021년 7월 1일
기획 및 연구 CSES · triplelight
디자인 디자인아크

※2021 일반 국민 설문조사 로데이터는 CSE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ebsite

www.cses.re.kr
www.triplelight.co

Address

0434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45길 28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3층 80호 트리플라잇 주식회사

E-mail

research@cses.re.kr
impact@triplelight.co

연구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CSES · triplelight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2021 CSES · triplelight. All rights reserved.

픽토그램은 www.flaticon.com의 자료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